

遺民墓誌銘을 통해본 唐의 東方政策과 高句麗 遺民의 동향*

여호규** · 拜根興***

국문초록

본 논문은 고구려 遺民墓誌銘을 바탕으로 “7세기 후반 唐의 東方政策과 高句麗 遺民의 동향”을 고찰한 것이었다. 필자는 陝西師範大學 拜根興 교수와 공동으로 이 글을 작성하면서 고구려 유민묘지명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문헌자료와 연계시켜 “당의 동방정책 변화에 따른 고구려 유민의 동향”을 각각도로 고찰했다. 이를 통해 고구려 멸망 이후 다양하게 전개된 고구려 유민의 동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이들의 동향이 당의 동방정책에 미친 영향을 새롭게 고찰할 수 있었다.

가령 2015년에 발견된 〈南單德墓誌銘〉이나 高欽德·高遠望 父子의 墓誌銘을 통해 고구려 멸망 직후 당이 고구려 고지에 대해 기미지배를 구축하던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李他仁墓誌銘〉이나 唐의 관인이었던 〈陽玄基墓誌銘〉을 통해서는 고구려 부흥운동이 요동지역이나 한반도 서북지역뿐 아니라 부여 지역이나 두만강 유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전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高乙德墓誌銘〉을 통해서는 당이 673년경 고구려 부흥운동을 진압하고, 674년부터 신라와의 전면전에 착수하던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당은 679년부터 대규모 원정군을 편성해 돌궐의 침공을 방어했는데, 여러 유민묘지명을 통해 고구려 유민 출신 장수들이 돌궐 방어전에 투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高玄墓誌銘〉을 통해서는 각 州에 분산 배치한 고구려 遺民 병사를 체계적으로 동원한 사실도 새롭게 파악했다. 그리고 696년 6월 거란의 흥기는 698년 발해의 건국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자의 관심을 받았지만, 사료의 제약으로 고구려 고지에 거주하던 유민의 동향을 파악하기는 힘들었다. 그런데 〈高質墓誌銘〉과 〈高慈墓誌銘〉을 통해 거란의 흥기 직후 요동지역의 고구려 유민들이 부흥운동을 전개한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

부여지역과 두만강 유역에서도 고구려 부흥운동이 전개된 사실을 밝힌 것은 향후 이 분야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거란의 흥기 직후, 요동지역의 고구려 유민이 부흥운동을 전개한 사실을 밝힌 것도 발해 건국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 글이 고구려 유민의 동향, 신라의 대당정책, 당의 동방정책 변화 등이 맞물리며 통일신라의 확립과 발해의 건국으로 귀결된 이 시기 한국사의 전개양상을 재조명할 단서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高句麗 유민, 고구려 부흥운동, 당의 동방정책, 유민묘지명, 발해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2A1A01026128)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hgyeo1123@hufs.ac.kr

*** 中國 陝西師範大學 歷史文化學院 교수 / baigenxing@126.com

— 목 차 —	
I. 머리말	III. 680~690년대 唐의 東方政策과 高句麗 遺民의 動向
II. 660~670년대 唐의 東方政策과 高句麗 遺民의 動向	IV. 맺음말

I. 머리말

7세기 후반은 韓國史뿐 아니라 동아시아 역사상 대격동의 시기였다. 만주와 한반도에서는 백제와 고구려가 나당연합군에 의해 차례로 멸망당하고, 통일신라와 발해가 새로운 주역으로 부상했다. 한국사의 이러한 전환은 唐의 대외정책과 밀접한 연관 아래 이루어졌다. 당시 唐은 궁극적으로 백제와 고구려뿐 아니라 신라 지역까지 唐의 羈縻州 지배체제로 편입하려는 목표 아래 동방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당의 동방정책에 대해 고구려 지배층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665년 淵蓋蘇文 사후 내분에 휩싸였다가 멸망당했다.

唐의 東方政策은 百濟 故地에 熊津都督府, 高句麗 故地에 安東都護府를 설치하면서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난관에 봉착했다. 당의 동방정책이 난관에 봉착한 데는 吐蕃과 突厥이 흥기한 탓도 있지만, 신라의 대당정책과 고구려 유민의 동향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신라는 백제 고지에 대한 당의 웅진도독부 설치를 목격한 다음, 고구려 멸망 이후를 다각도로 대비했다. 이러한 신라의 대응책은 고구려 유민의 부흥운동과 맞물리며 나당전쟁으로 이어졌고, 나당전쟁에서 패배한 당은 만주와 한반도 전체에 羈縻州 支配體制를 구축하려던 동방정책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고구려가 멸망한 668년에서 발해가 건국되는 698년까지 약 30여 년은 당의 동방정책, 신라의 대당정책, 고구려 유민의 동향 등이 맞물리며 만주와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정세가 조성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고구려 유민의 동향은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고구려 멸망을 전후해 당에 투항하거나 당의 동방정책에 협조한 고구려인도 있었지만, 상당수 고구려인은 부흥운동을 전개하며 당에 항거했다. 고구려 유민의 부흥운동은 高句麗 故地 전역에 걸쳐 전개되었다. 한반도 지역의 부흥운동이 신라의 나당전쟁 승리에 결정적 작용을 했다면, 만주 지역의 부흥운동은 발해 건국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이러한 고구려 유민의 동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¹⁾ 이를 통해 7세기 후반 고구려 유민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최근 중국의 西安과 洛陽 등지에서 고구려 유민묘지명이 다수 출토되고 있는데, 이들 묘지명은 문헌사료를 통해 파악하기 힘든 당의 동방정책 변화나 고구려 유민의 동향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구려 유민묘지명을 바탕으로 7세기 후반 당의 동방정

1) 고구려 유민의 동향에 대한 종합 검토는 盧泰敦, 「高句麗 遺民史 研究」, 『韓沽勛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知識產業社, 1981; 金賢淑, 「中國 所在 高句麗 遺民의 동향」, 『한국고대사연구』 23, 2001; 김종복, 『발해정치외교사 연구』, 일지사, 2009 등 참조.

책과 고구려 유민의 동향을 연계시켜 살펴보고자 한다.²⁾ 이를 바탕으로 고구려 유민의 동향, 신라의 대당정책, 당의 동방정책 변화 등이 맞물리며 통일신라의 확립과 발해의 건국으로 귀결된 한국사의 전개양상을 보다 거시적 시각에서 재조명할 단서를 확보하고자 한다. 아낌없는 질정을 바란다.³⁾

II. 660~670년대의 唐의 東方政策과 高句麗 遺民의 동향

1. 唐의 羈縻支配 시행과 高句麗 遺民의 參與

고구려는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668년 9월에 멸망했다.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은 곧바로 寶藏王과 男建 등 지배층을 長安으로 압송한 다음, 이해 12월 長安城 大明宮의 含元殿에서 정토 기념식을 거행했다. 그리고는 고구려의 5部, 176城, 69만여戶를 9都督府, 42州, 100縣으로 재편함과 더불어, 平壤城에 安東都護府를 설치해 薛仁貴를 檢校 安東都護로 삼아 병사 2만명을 거느리고 劉仁軌와 함께 고구려 고지를 鎮撫하게 했다.⁴⁾

唐이 고구려를 멸망시킨 지 불과 3개월 만에 高句麗 故地를 安東都護府 支配體制로 편제한 것이다. 그런데 『舊唐書』高宗紀에 따르면 唐이 670년 1월에 “요동 곧 고구려 지역을 나누어 州縣으로 삼았다”고 한다.⁵⁾ 이는 668년 12월의 安東都護府 설치 및 府·州·縣 편제는 圖上의 계획이었고, 그 이후 제반 사정으로 670년 1월에 비로소 州·縣 편제를 실행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고구려 멸망 이듬해인 669년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가 주목된다.

먼저 669년 2월에 보장왕의 서자인 安勝이 4천여 호를 거느리고 신라에 투항했는데,⁶⁾ 이는 고구려 멸망 직후부터 唐에 대한 遺民의 離叛이 널리 일어났을 가능성을 시사한다.⁷⁾ 이러한 가능성은 唐이 고구려 유민을 대거 唐의 內地로 강제 이주시킨 사실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당은 669년 4·5월에 고구려 유민 28,200호를 萊州와 營州를 경유하여 長江과 淮河 남쪽 및 山南과 并州·涼州 서쪽의 여러 州로 강제 이주시켰다.⁸⁾

2) 현재까지 출토된 고구려 유민묘지명은 20~25기 정도인데(권덕영, 「한국고대사 관련 중국 금석문 조사 연구」, 『사학연구』 97, 2010; 拜根興, 『唐代高麗百濟移民研究』,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12; 김수진, 「당으로 이주한 고구려 포로와 지배층에 대한 문헌과 묘지명의 기록」, 『한국고대사 연구의 자료와 해석』(노태돈교수정년기념논총), 사계절, 2014; 윤용구, 「중국 출토 고구려 백제 유민 묘지명 연구동향」, 『한국고대사연구』 75, 2014 등 참조), 이중 10여기의 묘지명에서 당의 동방정책과 관련한 고구려 유민의 동향이 확인된다.

3) 이 글은 2016년 8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한 “고대 동아시아 석각연구의 새로운 방향”이라는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4) 『舊唐書』 권19 지리2 안동도호부조; 『舊唐書』 권199상 열전149상 고려전; 『資治通鑑』 권201 唐紀17 고종 總章원년 12월조; 『舊唐書』 권83 열전33 설인귀전.

5) 『舊唐書』 권5 고종기하 總章원년 춘정월 : “辛卯, 列遼東地爲州縣.”

6) 『三國史記』 고구려본기10 보장왕하 : “(總章)二年己巳二月, 王之庶子安勝率四千餘戶, 投新羅.”

7) 670년 신라군과 함께 오골성을 공격한 고연무를 이때부터 당에 항거한 고구려 유력자로 보기도 한다(이정빈, 「고연무의 고구려 부흥세력과 부흥운동의 전개」, 『역사와현실』 72, 2009, 140~145쪽).

8) 『舊唐書』 권5 高宗紀 하 총장2년 5월 경자조.

이러한 강제 이주를 『資治通鑑』에서는 “고구려 유민 가운데 離叛者가 많아” 이주시켰고, 그 결과 “貧弱者만 남겨 안동(도호부)을 지키게 했다”고 기술했다.⁹⁾ 고구려 유민의 강제 이주는 安東都護府 설치 당시에 계획된 조치가 아니라 당에 항거하는 ‘離叛者’가 많이 발생하자, 이를 통제하기 위해 시행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강제 이주 결과 ‘貧弱者’만 남게 되었다고 하므로 강제 이주된 ‘離叛者’는 주로 지배층에 해당하는 유력자로 추정된다.

① 〈南單德墓誌銘〉¹⁰⁾ : 故饒陽郡王 諱單德, 字單德. …(중략)…公生居平壤, 長隸遼東. …(중략)…時夔曾祖行軍大總管平陽公¹¹⁾ 擐甲先驅, 隳拔城邑, 生擒其王莫麗支, 斬首獲俘, 不可勝計. 因此, 分隸遼東子弟, 郡縣散居. 公之家, 子弟首也, 配住安東. 祖狄, 皇磨米州都督. 父于, 皇歸州刺史. 昆弟四人, 單德元子也.

이 사료는 최근 발견된 〈南單德墓誌銘〉의 일부이다. 이에 따르면 고구려 멸망 이후 “遼東[고구려]의 자제들을 分隸하여 (당의) 郡縣에 散居시켰다”고 하는데,¹²⁾ 이는 669년 4~5월 고구려 유민을 唐의 內地로 강제 이주시킨 조치를 가리킨다.¹³⁾ 이에 비해 南單德 가문은 “(고구려) 子弟 중 으뜸이어서 安東都護府에 배치되어 거주했고, 조부인 南狄는 皇朝[唐]의 磨米州 都督을 역임했다”고 한다. 南單德의 가문이 唐에 적극 협력하여 안동도호부가 관할하던 고구려 고지에 남았고, 조부인 南狄는 磨米州都督까지 지낸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唐의 郡縣으로 散居된 遼東고구려의 子弟는 대체로 南單德 가문과 달리 唐의 지배정책에 항거했거나 비협조적 태도를 취했다고 파악된다. 바로 『資治通鑑』의 ‘離叛者’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료에서는 移住 대상을 ‘子弟’라고 명시했다. 여기의 子弟를 唐의 團結兵 관련 사료에서 ‘城傍子弟’를 ‘城傍兵’으로 일컫는 사례를 참조하여¹⁴⁾ ‘고구려 병사 혹은 민’을 지칭한다고 보기도 한다.¹⁵⁾ 그런데 ‘子弟’는 흔히 ‘貴族子弟’의 줄임말 또는 ‘父老’에 대비되는 청장년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인다. 여기의 ‘子弟’는 일반 백성보다는 南單德 가문과 같은 유력자의 자제로 『資治通鑑』의 ‘貧弱者’에 대비되는 존재로 추정된다.

이처럼 〈南單德墓誌銘〉의 사료 ①은 669년 4~5월에 강제 이주된 高句麗 遺民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당은 高句麗 故地의 유력자들이 항거하거나 협조하지 않자, 子弟 곧 유력자층의 청장년을 대거 唐의 內地로 강제 이주시켰던 것이다. 이는 당이 고구려 멸망 직후 고구려 고지에 대한 기미지배 정책을 수립했지만,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唐은 자신의 지배정책에 항거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유력자

9) 『資治通鑑』 권201 唐紀17 高宗 總章2년 4월조. 다만 『資治通鑑』에는 이때 38,200명을 강제 이주시켰다고 나오지만, 제반 사료를 종합하면 28,800명의 誤記로 파악된다.

10) 관독문은 王菁·王其禕, 「平壤城 南氏: 入唐高句麗移民新資料」, 『北方文物』 2015-1, 80~81쪽; 장병진, 「새로 소개된 고구려 유민 ‘南單德’ 묘지에 대한 검토」, 『高句麗渤海研究』 52, 2015, 281쪽 참조.

11) 668년 12월에 平陽郡公에 봉해지고 檢校安東都護를 역임한 薛仁貴를 지칭한다.

12) “分隸遼東, 子弟郡縣散居”로 句讀하여 “고구려 降卒과 移民을 요동지구에 분산 배치하고, 부·주·현을 설치하여 분산 관리했다”고도 해석하지만(王菁·王其禕, 앞의 글, 2015, 80쪽),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13) 장병진, 앞의 글, 2015, 283쪽 각주 23.

14) 정병준, 「營州城傍高麗人」 王思禮, 『고구려연구』 19, 2005, 257쪽.

15) 장병진, 앞의 글, 2015, 283쪽 각주 22; 이규호, 「당의 고구려 유민정책과 유민들의 동향」, 『역사와현실』 101, 2016, 151쪽.

를 가려내 內地로 이주시키는 한편, 南單德 가문과 같은 협조적인 유력자를 선발해 적극 활용했던 것이다.

그런데 唐이 669년 4~5월에 고구려 유민을 이주시킬 때 경유한 萊州와 營州는 각각 현재의 山東半島와 遼西地域에 해당한다. 萊州가 중국대륙과 만주-한반도를 잇는 海路上의 요충지라면, 營州는 陸路上的 요충지이다. 이로 보아 唐은 海路上的 요충지인 萊州를 통해서는 주로 평양 등 한반도 서북지역의 유민을 長江과 淮河 방면으로 이주시켰고, 陸路上的 요충지인 營州를 통해서는 요동지역의 유민을 山南과 并州-涼州 방면으로 이주시킨 것으로 추정된다.¹⁶⁾ 唐이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의 고구려 유민을 강제 이주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平壤城에 파견되었던 檢校 安東都護 薛仁貴가 699년경 요동의 新城으로 옮긴 사실이 주목된다.¹⁷⁾ 薛仁貴는 667~668년 고구려 공략 과정에서 부여성과 그 주변의 40여성을 공략한 다음 渾河-蘇子河 유역의 남소성, 목저성, 창암성 등을 함락시킨 바 있다. 이로 보아 薛仁貴는 종전의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요동지역의 유력자를 협조자와 비협조자로 選別한 다음, 협조자는 당의 관리에 임명하는 한편[有幹能者, 隨才任使], 비협조자는 강제 이주시켰다고 파악된다. 이때 劉仁軌는 평양성에서 서북한 지역의 고구려 유민에 대한 선별과 강제 이주 업무를 총괄했을 것이다.¹⁸⁾

이렇게 본다면 고구려 멸망 직후 唐의 支配政策에 대한 抗拒는 高句麗 故地 각지에서 일어났다고 파악된다. 『資治通鑑』에 나오는 離叛者는 劍牟岑이나¹⁹⁾ 安勝²⁰⁾ 등 특정 세력으로 보기도 하지만, 〈南單德墓誌銘〉에 나오는 ‘遼東子弟’ 곧 高句麗 故地 각지의 유력자를 가리킨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고구려 유민의 항거나 비협조로 인해 唐은 고구려 고지에 대한 지배정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당은 669년 4~5월경 비협조적인 유력자를 대거 강제 이주시킨 다음, 670년 1월에야 고구려 고지를 安東都護府 예하의 州縣으로 편제할 수 있었다. 당은 668년 12월에 고구려 고지에 대한 지배정책을 수립했지만, 1년여의 준비를 거쳐 670년 1월에야 비로소 羈縻支配를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²¹⁾

그런데 唐은 安東都護府를 설치한 다음 각 府·州·縣의 장관에는 현지의 유력자(酋帥)를 임명하는 한편, 唐의 관인(華인)을 파견해 함께 다스리도록 했다.²²⁾ 이러한 羈縻州 支配와 관련된 양상은 최근 발견된 고구려 유민묘지명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료 ①에 따르면 高句麗 遺民의 자제들이 강제 이주될 때, 南單德 가문은 “子弟 중 으뜸[首]이어서 安東都護府에 배치되었고, 南狄는 皇朝(唐)의 磨米州 都督을 역임했다”고 한다.

磨米州는 645년 唐 太宗의 고구려 침공 때 함락당하기도 했던 磨米城에²³⁾ 설치한 羈縻州인데, 그 위치는 本溪 邊牛山城으로 비정된다.²⁴⁾ 『舊唐書』나 『新唐書』지리지에도 磨米州가 安東都護府 예하 羈縻州의 하나

16) 노태돈, 앞의 글, 1981, 81쪽 및 97쪽.

17) 『舊唐書』권83 열전33 설인귀전.

18) 김중복, 앞의 책, 2009, 24~25쪽.

19)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5, 460쪽.

20) 김중복, 앞의 책, 2009, 22~24쪽.

21) 노태돈, 앞의 글, 1981, 81쪽; 김중복, 앞의 책, 2009, 26~27쪽.

22) 『舊唐書』권199상 열전149상 고려전.

23) 『資治通鑑』권198 貞觀19년 10월조.

24) 이 글의 2장 2절의 95쪽 참조.

로 나온다.²⁵⁾ 南單德의 조부인 南狄은 고구려 유민의 酋帥(유력자) 가운데 安東都護府 예하의 靺廝州 장관에 임명된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磨米州는 都督府가 아니라 州의 하나였으므로 南狄이 실제 역임한 관직은 磨米州 刺史였을 것이다. 또한 그의 아들인 南于는 歸州刺史를²⁶⁾ 역임했다고 하므로 南單德 가문은 南于代에는 唐 內地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高欽德墓誌銘〉²⁷⁾ : 公諱欽德, 字應休, 渤海人也. 曾祖湊, 建安州都督. 祖懷, 襲爵建安州都督. 父千, 唐左玉鈐衛中郎, 公即先君仲子也.

②-㉡ 〈高遠望墓誌銘〉²⁸⁾ : 其地逼烏丸·鮮, 接夫餘·肅慎. 東征西討, 其邑里或遷于河北, 渤海高氏則其宗盟, 或留於漠南. 曾祖懷, 唐雲麾將軍, 建安州都督. 祖千, 唐左玉鈐衛中郎, 襲爵建安州都督. 父欽德, 襲建州都督, 皇右武衛將軍·幽州副節度知平盧軍事, 承世簪組, 禮有聞, 方伯家綏, 宣和咸秩, 君即將軍第一子也.

사료 ②는 부자관계인 〈고흠덕묘지명〉과 〈고원망묘지명〉이다. 이들 묘지명에 따르면 고흠덕 가문은 曾祖인 高湊 이래 高欽德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建安州 都督을 襲爵했다. 建安州는 고구려의 建安城으로 遼寧省 蓋州의 高麗城山城으로 비정되며, 고구려 멸망 이후에는 安東都護府 예하의 建安州都督府가 설치되었다.²⁹⁾

그런데 고흠덕이 677~733년에 활동한 사실을 고려하면 그의 증조부인 高湊은 고구려 멸망 이전인 7세기 초중반에 활동한 것으로 파악된다.³⁰⁾ 高湊은 고구려 멸망 이전에 당의 都督에 비견되었던 建安城 褥薩을 역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조부인 高懷가 역임한 建安州 都督은 고흠덕의 활동시기로 보아 고구려 지방관이었을 가능성과³¹⁾ 安東都護府 예하 靺廝府의 장관일 가능성이 모두 있다.³²⁾ 이에 비해 부친인 高千이나 고흠덕이 역임한 建安州 都督은 安東都護府 예하에 설치된 建安州都督府의 都督으로 파악된다.

고흠덕 가문은 고구려 멸망 이전부터 고구려 최고 지방관인 建安州의 육살을 역임했고, 멸망 이후에도 安東都護府 예하 建安州都督府의 都督을 襲爵했던 것이다. 唐이 “靺廝州 장관에 임명한 고구려 酋帥(유력자)”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고흠덕의 아들인 고원망은 出仕하기 이전부터 무예를 익히고 집안 대대로 군졸을 거느렸다고 한다.³³⁾ 그의 가문이 대대로 建安州 都督을 襲爵한 사실을 고려하면, 고구려

25) 『舊唐書』 권19 지리2 안동도호부조; 『新唐書』 권43하 지33하 지리7하.

26) 唐의 歸州는 山南道(湖北省)와 靜邊州都督府(甘肅省)에 설치된 적이 있다(장병진 2015, 284쪽, 각주 26).

27) 판독문은 『唐代墓誌彙編(下卷)』, 1416쪽; 『洛陽出土少數民族墓誌匯編』, 316쪽; 拜根興, 앞의 책, 2012, 272쪽; 권은주, 「고구려유민 高欽德, 高遠望 부자 묘지명 검토」, 『대구사학』 116, 2014, 45~46쪽 참조.

28) 판독문은 『全唐文補遺(第八輯)』, 47~48쪽; 『洛陽出土少數民族墓誌匯編』, 315~316쪽; 拜根興, 앞의 책, 2012, 273~275쪽; 권은주, 앞의 글, 2014, 7~8쪽 참조.

29) 『舊唐書』 권19 지리2 안동도호부조; 『新唐書』 권43하 지33하 지리7하.

30) 拜根興, 앞의 책, 2012, 168~169쪽; 권은주, 앞의 글, 2014, 63~64쪽.

31) 권은주, 앞의 글, 2014, 63~64쪽.

32) 고원과 고희가 역임한 건안주도독을 당이 임명했다고 보기도 한다(김현숙, 「고구려 붕괴 후 그 유민의 거취 문제」, 『한국고대사연구』 33, 2004, 88쪽). 고흠덕 가문의 입당 시기에 대해서는 장병진, 「당의 고구려 고지 지방방식과 유민의 대응」, 『역사와현실』 101, 2016, 131쪽의 각주 88 참조.

33) 〈고원망묘지명〉: “君早習孤矢, 家傳將率…(중략)…解褐有制, 超拜淨蕃府果毅兼保塞軍副使…(중략)…白衣拜將, 豈埋輪而足

유민으로 구성된 蕃兵을 지휘했을 가능성이 높다.³⁴⁾ 그러므로 安東都護府 예하 靺鞨州의 장관으로 임명된 高句麗 酋帥는 해당 지역의 고구려 유민으로 구성된 蕃兵을 지휘했을 가능성이 높다.

唐이 699년에 유력한 고구려 유민을 협조자와 비협조자로 선별한 다음, 비협조자를 唐의 內地로 강제 이주시킨 이유는 여기에 있다. 唐이 최소 비용으로 高句麗 故地에 대한 靺鞨支配를 시행하려면 고구려 유민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내고, 이들을 蕃兵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高句麗 遺民의 反唐 저항력을 제거해야 했다.³⁵⁾ 이에 당은 강제 이주 조치를 통해 고구려 유민의 반당 저항력을 상당 부분 제거한 다음, 南單德이나 高欽德 가문처럼 협조적인 유력자를 靺鞨州 장관에 임명하여 蕃兵을 통솔하며 唐의 기미지배를 구현하도록 했던 것이다.³⁶⁾ 다만 高句麗 故地에 대한 靺鞨支配를 高句麗 遺民에게만 맡겨놓을 경우, 예기치 않은 反唐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

③-㉠ 〈李氏夫人墓誌銘〉³⁷⁾ : 大父元哲 官至安東大都護長史, 與太宗有故, 賜姓李氏. …(중략)…府君更郎將中郎將各一, 將軍大將軍凡四, 前後領左右羽林二軍禁營, 清海鴨綠二道總管. …(중략)…神龍元年十二月二十二日, 寢疾終於洛陽之德懋里, 春秋若干.

③-㉡ 〈南郭生墓誌銘〉³⁸⁾ : 卽以龍朔二年, 樂浪道征, 公參百戰, 遼海息其妖氛, 威懾九梯, 肅慎貢其楷矢, 爰從獻凱. 式備疇庸, 尋授上柱國. …(중략)…解褐擢授安東都護府錄事參軍事. …(중략)…去延載元年八月十八日, 終於官第, 春秋五十有七.

③-㉢ 〈李氏夫人墓誌銘〉³⁹⁾ : 祖光嗣, 皇安東都護府功曹參軍.

③-㉣ 〈陽玄基墓誌銘〉⁴⁰⁾ : 龍朔元年(661년), 隨契苾何力破鴨渚, 授游擊將軍, 左驍衛善信府果毅. 總章元年(668년), 授鹿陵府長上折衝, 仍檢校東柵州都督府長史. 誅反首領高定問等, 封定陽郡公. 食邑二千戶.

사료 ③은 安東都護府나 그 예하 靺鞨州의 관원을 역임한 唐 官人의 묘지명이다. 먼저 ③의 ㉠~㉣에 따르면 唐의 官人들이 安東都護府의 長史, 錄事參軍事, 功曹參軍 등을 역임했다고 한다. 唐이 靺鞨支配를 위해 설치한 都護府의 屬僚로는 長史, 司馬, 錄事參軍事, 錄事, 各曹參軍事, 參軍事 등이 있는데,⁴¹⁾ 安東都護府의 경우 長史, 錄事參軍事, 諸曹參軍事 등을 唐의 官人으로 충원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唐이 自國 官人을 잠시 철수한 676~680년경을 제외하면 安東都護府의 屬僚는 기본적으로 唐의 관인으로 충당했다고

榮. 集退晏如, 子父同道.”

34) 고원망(697~740년)은 730년대에 요서지역에서 전공을 세운 다음 安東大都護府 副都護 겸 松漠使에 임명되었는데, 고구려 유민으로 구성된 蕃兵을 통솔하며 契丹을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35) 노태돈, 앞의 글, 1981, 81쪽.

36) 최근 장병진, 앞의 글, 2016, 127~128쪽; 이규호, 앞의 글, 2016, 147~149쪽에서도 이 점이 지적되었다.

37) 판독문은 『全唐文新編』 232; 권덕영 외, 『중국 소재 한국 고대 금석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5, 368쪽 참조.

38) 판독문은 『全唐文新編』 994; 권덕영 외, 앞의 책, 2015, 124쪽 참조.

39) 판독문은 『唐代墓誌彙編』; 권덕영 외, 앞의 책, 2015, 370쪽 참조.

40) 판독문은 『全唐文補遺』 8; 권덕영 외, 앞의 책, 2015, 254쪽 참조.

41) 각 관원의 품계와 정원은 도호부 등급에 따라 달랐다(『舊唐書』 직관지3 大都護府 및 上都護府조 참조).

파악된다.

唐은 자국 官人을 安東都護府의 屬僚로 파견하여 高句麗 故地에 대한 지배정책 전반을 총괄하도록 했던 것이다. 이는 唐이 安東都護府에 파견한 唐의 官人을 통해 各 羈縻府州를 강력하게 통제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唐이 各 羈縻府州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羈縻府州에도 唐의 官人을 파견할 필요가 있었다. “고구려의 酋帥유력자 가운데 공이 있는 자는 都督·刺史·縣令에 임명하고, 唐의 官人華人和 함께 백성을 다스리도록 했다”는 기사⁴²⁾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다. 唐이 各 羈縻府州에도 唐의 官人을 屬僚로 파견하여 고구려 유민 출신의 장관과 함께 해당 지역을 다스리도록 했다는 것이다.

사료 ③-⑤은 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상기 사료에서 보듯이 陽玄基는 661년에 契苾何力을 따라 고구려 원정에 參戰한 바 있고, 고구려가 멸망하던 668년에는 鹿陵府의 長上 折衝을 수여받았다가 檢校 東柵州都督府 長史에 임명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陽玄基가 일찍이 고구려 원정에 참전한 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668년에 長史로 부임한 東柵州都督府는 두만강 유역의 고구려 重鎮이었던 柵城에 설치한 安東都護府 예하의 羈縻府일 가능성이 높다.⁴³⁾ 고구려 멸망 이전에 柵城에 최고 지방관인 육살(都督)이 파견되었고, 〈李他仁墓誌銘〉에서 柵城을 柵州라고 지칭한 사실은 이러한 가능성을 방증한다.⁴⁴⁾

이처럼 당이 羈縻府州에도 속료를 파견한 사실은 후수말갈의 사례를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唐이 黑水靺鞨에 都督府를 설치한 다음, 토착 수령을 都督으로 삼고, 최고위 속료인 長史에는 唐의 官人을 파견하여 각 部落를 監領했던 것이다.⁴⁵⁾ 이로 보아 고구려 유민 출신의 羈縻府州 장관과 함께 백성을 다스렸다는 당의 官人은 羈縻府州의 高位 屬僚로 파견된 長史나 司馬 등을 지칭한다고 추정된다.⁴⁶⁾ 唐은 安東都護府뿐 아니라 各 羈縻府州의 고위 속료에도 唐의 관인을 파견해 기미지배를 도모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高句麗 遺民 출신의 羈縻府州 장관은 安東都護府의 통제와 함께 자신의 府州에 屬僚로 파견된 唐 官人의 감시도 받았을 것이다. 高句麗 遺民 출신의 羈縻府州 장관은 상급 기관인 安東都護府와 휘하 屬僚의 이중적인 통제와 감시를 받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高句麗 故地에 대한 唐의 통제력이 강화될수록 高句麗 遺民 출신 羈縻府州 장관의 권한과 세력기반은 오히려 축소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高句麗 遺民 출신 羈縻府州 장관이 자신의 세력기반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唐에 抗拒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42) 『舊唐書』 권199상 열전149상 고려전: “擢其酋渠有功者授都督·刺史及縣令, 與華人參理百姓.”

43) 呂九卿, 「試探武周陽玄基墓誌中的若干問題」, 『武則天與神都洛陽』, 中國文史出版社, 2008, 336~338쪽; 拜根興, 「唐 李他仁墓誌에 대한 몇 가지 고찰」, 『충북사학』 24, 2010a, 214~215쪽.

44) 〈高質묘지명〉: “父量, 三品柵城都督·位頭大兄兼大相.”

〈高慈묘지명〉: “祖量 本蕃, 任三品柵城都督·位頭大兄兼大相, 少稟 弓冶, 長承基構, 爲方鎮之領袖, 實屬城之准的.”

〈李他仁묘지명〉: “君諱他仁, 本遼東柵州人也. …(중략)…于時, 授公柵州都督兼總兵馬, 管一十二州高麗, 統三十七部靺鞨.”

45) 『舊唐書』 권199하 열전149하 말갈전: “開元十三年, 安東都護薛泰請於黑水靺鞨內置黑水軍. 續更以最大部落爲黑水府, 仍以其首領爲都督, 諸部刺史 屬焉. 中國置長史, 就其部落監領之.”

46) 김중복, 앞의 책, 2009, 32쪽.

2. 高句麗 遺民의 抗拒와 唐의 羈縻政策 수정

실제 高句麗 遺民들은 唐이 기미지배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670년 1월 직후부터 대대적으로 唐에 抗拒했다. 670년 3월에는 고구려 태대형 高延武가 신라의 사찬 薛烏儒와 함께 압록강을 넘어 屋骨城(오골성, 요녕성 봉황산성) 방면으로 진공하여 4월 4일에 皆敦壤에서 말갈병과 접전을 벌여 승리했다.⁴⁷⁾ 이해 4월에는 劍牟岑이 浪江대동강 일대에서 부흥운동을 전개했다.⁴⁸⁾ 이에 唐도 이해 4월에 高侃을 東州道行軍總管, 말갈 출신의 李謹行을 燕山道行軍總管에 임명하여 각각 唐軍과 蕃兵을 거느리고 고구려 부흥운동을 진압하도록 했다.⁴⁹⁾

이와 함께 唐은 薛仁貴를 鷄林道總管에 임명하여 百濟故地로 파견해 신라를 공략하게 했다.⁵⁰⁾ 그런데 薛仁貴는 670년 4월 吐蕃 전역에 투입되었다가, 670년 7월 吐蕃에게 대패를 당하고 면직되었다.⁵¹⁾ 薛仁貴가 鷄林道總管에 임명된 것은 670년 7월 이후라고 봐야 하는데, 671년 7월 26일에 鷄林道總管의 자격으로 신라 문무왕에게 외교문서를 보내고 있으므로 그 하한은 671년 7월이다. 제반 상황으로 보아 671년 상반기에 계림도총관에 임명되어 해로를 통해 백제고지로 파견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⁵²⁾

이는 唐이 東州道行軍總管府·燕山道行軍總管府와 鷄林道總管府를 시차를 두고 편성했으며, 처음에는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과 신라와의 연대를 認知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671년 7월 薛仁貴가 문무왕에게 보낸 외교문서에 고구려 부흥세력과 신라와의 연대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것도 이를 시사한다. 이에 唐은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과 신라군 진압을 총괄 지휘하는 大總管府를 편성하지 않고, 위상이 동일한 東州道行軍總管府·燕山道行軍總管府와 鷄林道總管府를 시차를 두고 별도로 편성했던 것이다.

고구려 방면에 투입된 高侃은 먼저 安東都護府의 治所를 平壤에서 遼東州로 옮긴 다음,⁵³⁾ 671년 7월에 安市城의 고구려 부흥세력(餘衆)을 격파했으며, 다시 泉山에서 신라의 지원병 2천명을 사로잡았다. 李謹行도 發盧河에서 고구려 부흥세력을 격파했다.⁵⁴⁾ 그런 다음 高侃과 李謹行은 672년 7월 평양성에 도착한 다음,

47) 『三國史記』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10년 3월조.

48) 최근 검토가 요동지역을 거점으로 부흥운동을 전개했고, 요서지역의 고구려 유민과 연계를 도모했다고 상정하는 견해가 제기되었다(이상훈, 「검모잠의 최초 거병지 검토」, 『한국 고대사 연구의 자료와 해석』(노태돈교수정년기념논총2), 사계절, 2014, 67~72쪽; 김강훈, 「요동지역의 고구려 부흥운동과 검모잠」, 『군사』 99, 2016, 13~33쪽).

49) 『新唐書』 권3 고종기 咸亨원년 4월조; 『三國史記』 권6 문무왕 10년 6월조.

50) 『舊唐書』 권83 열전33 설인귀전: “尋而高麗衆相率復叛, 詔起仁貴為雞林道總管以經略之.”

51) 『舊唐書』 권5 고종기하 咸亨원년 7월 무자조.

52) 존 씨 재미슨, 「나당동맹의 와해」, 『역사학보』 44, 1969, 3~4쪽. (郭行節墓誌銘)(周紹良·趙超 주편, 『唐代墓誌集編續集』上海古籍出版社, 2001; 권덕영 외, 앞의 책 2015, 658쪽)의 “屬靑丘背命, 玄菟挺災, 軍將等以公習戎昭, 夙閑略, 遂表公為鷄林道判官兼知子營總管. 又奏公為押運使. 於是揚舲巨海, 鼓棹遼川, 風起濤驚, 船塊而溺, 形沉水府, 神往脩文, 其化迹之時, 即唐咸亨二年(671년)之歲也(671년).”라는 명문은 鷄林道總管軍이 671년에 海路를 통해 출정했음을 알려준다. (楊福延墓誌銘)에 따르면 楊福延은 672년에 ‘鷄林道行軍長史’에 임명되었다고 한다(권덕영 외, 앞의 책, 2015, 701쪽).

53) 이 무렵 高侃이 安東都護를 역임한 것으로 추정된다(존 씨 재미슨, 앞의 글, 1969, 5쪽; 『舊唐書』 권152 高固전: “高祖侃(중략) 官至安東都護, 事具前錄.”).

54) 『新唐書』 권220 열전145 고려전: “侃徙都護府治遼東州, 破叛兵於安市, 又敗之泉山, 俘新羅援兵二千. 李謹行破之於發盧河, 再戰, 俘賊萬計.”

『資治通鑑』 권202 당기18 咸亨2년 7월조: “乙未朔, 高侃破高麗餘衆於安市城.”

이해 8월부터 황해도 방면으로 진격했다.⁵⁵⁾ 그 뒤 당군은 672~673년에는 황해도 일대에서 고구려 부흥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신라군과 전투를 벌였다. 그리고 674년에는 薛仁貴 대신 劉仁軌를 鷄林道大總管으로 삼아 대규모 원정군을 재편성하여 임진강 유역까지 진격해 675년 9월까지 신라군과 전투를 벌였다.⁵⁶⁾

이로 보아 唐이 靺鞨支配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670년 1월 직후에 고구려 유민들이 唐에 항거하며 672년 7월까지 遼河-鴨綠江 및 西北韓 일대 두 방면에서 부흥운동을 전개했다고 파악된다. 다만 요동지역의 부흥운동은 671년 安市城 함락을 계기로 점차 약화되었고, 672~673년에는 신라의 후원 아래 주로 황해도 일대에서 전개했다고 파악된다.

- ④ 〈李他仁墓誌銘〉⁵⁷⁾ : 從英公入朝, 特蒙勞勉, 蒙授右戎衛將軍. 既而姜維構禍, 復擾成都, 穰穴挺妖, 俄翻穢境. 公又奉○○○詔進討扶餘, 重翦渠魁, 更承冠帶, 凱還飲至. 帝有嘉焉, 遷授同正員右領軍將軍. 上元二年歲次丁巳廿三日遘疾薨於長安之私第, 春秋六十有七.

상기 묘지명의 주인공인 李他仁은 두만강 방면인 柵城지역의 최고 지방관(梅薩)을 역임하다가, 667~668년에 唐에 투항하여 평양성 함락 시에 세운 전공으로 唐의 右戎衛將軍을 제수받았다.⁵⁸⁾ 그런데 상기 사료에 따르면 고구려가 멸망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姜維가禍를 일으켜 다시 成都를 어지럽히듯이, 고구려(穰穴)가妖怪로 이탈하여 잠시 고구려 지역(穢境)을 뒤집었는데, 공이詔書を 받들어 扶餘 지역으로 나아가 토벌하여 (부흥운동의) 우두머리를 제거하고 다시 冠帶의 지역으로 받들었다.”고 한다.

고구려 멸망 이후 扶餘지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李他仁이 이를 진압했다는 것이다. 李他仁은 上元2년 곧 675년에⁵⁹⁾ 사망했으므로 부여지역의 부흥운동은 675년 이전에 일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당이 고구려 유민의 항거를 제압하기 위해 669년 4~5월경 비협조적인 고구려 유력자를 대거 강제 이주시켰고, 670년 4월 경에는 遼東지역에서 부흥운동이 본격화된 사실을 고려하면, 부여지역에서도 고구려 멸망 직후⁶⁰⁾ 또는 늦어도 670년 전반에는⁶¹⁾ 부흥운동이 널리 전개되었다고 추정된다.

55) 『三國史記』 신라본기7 문무왕 12년 7월조 8월조. 같은 책의 신라본기6 문무왕 11년 9월조에도 고간과 이근행이 평양성에 도착했다고 나오는데, 중북 기사로 보인다(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9, 250쪽).

56) 671년 이후 당군과 고구려 부흥세력 및 신라군의 전반적인 전투양상에 대해서는 서영교, 『나당전쟁사연구』, 아세아문화사, 2006; 노태돈, 앞의 책, 2009; 이상훈, 『나당전쟁연구』, 주류성, 2012 등 참조.

57) 판독문은 여호규·李明, 「고구려 유민 '이타인묘지명'의 재판독 및 주요 쟁점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85, 2017, 375쪽 참조.

58) 拜根興, 「唐 李他仁 墓誌에 대한 몇 가지 고찰」, 『충북사학』 24, 2010a, 220~225쪽; 안정준, 「李他仁墓誌銘에 나타난 李他仁의 生涯와 族源」, 『목간과 문자』 11, 2013, 210~211쪽; 여호규·李明, 2017, 401~403쪽.

59) 상기 묘지명에 李他仁이 사망한 연도(上元2년)의 月 干支는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60) 『唐會要』 권27 行幸 및 『冊府元龜』 권549 諫諍部 褒賞조에 나오는 669년(총장 2년) 8월 고종의 行幸에 대한 詳刑大夫 來公敏의 進言에 나오는 “近但高麗雖平 扶餘尙梗”라는 표현을 근거로 669년에 부여지역에서 부흥운동이 전개되었다고 상정한 견해가 제기되어 주목된다(김강훈, 「고구려 멸망 이후 부여성 권역의 부흥운동」, 『대구사학』 127, 2017, 49~59쪽).

61) 孫鐵山, 「唐李他仁墓誌銘考釋」, 『遠望集』 下, 陝西人民美術出版社, 1998, 739쪽; 김중복, 2005 「고구려 멸망 전후의 말갈 동향」, 『북방사논총』 5, 182쪽; 안정준, 앞의 글, 2013, 212쪽. 필자도 요동지역의 부흥운동 상황을 근거로 부여지역 부흥운동이 670~671년경에 전개되었다고 파악한 바 있는데(여호규·李明, 앞의 글, 2017, 407쪽), 669년에 일어났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헌사료가 확인된 만큼 기존 견해를 유보하고자 한다.

그런데 상기 사료에서는 부여지역의 부흥운동을 姜維(202~264년)의 蜀漢 부흥 시도에 비유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姜維는 본래 曹魏의 장수였다가 諸葛亮의 1차 북벌 시에 蜀漢에 투항했는데, 曹魏가 蜀漢을 멸망시킬 때는 曹魏의 鐘會에게 투항했다가 鐘會를 부추겨 촉한의 부흥을 도모했던 인물이다.⁶²⁾ 이로 보아 부여지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우두머리[渠魁]도 姜維처럼 唐에 투항했다가 부흥운동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唐의 羈縻支配에 협력했던 유력자나 부여지역 羈縻府州의 장관이 부흥운동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李他仁이 柵城지역에서 고구려인과 靺鞨人을 함께 다스린 바 있고, 松花江 유역의 부여지역에는 粟末靺鞨이 다수 거주한 사실을 상기하면, 상기 고구려 부흥운동에 속말말갈이 참여했을 가능성도 있다.⁶³⁾ 후술하듯이 보장왕이 677년 요동지역으로 돌아온 이후 말갈과 연계하여 고구려 부흥운동을 도모했는데, 松花江 유역의 부여지역에서는 그 이전에 이미 高句麗 遺民과 靺鞨人이 연대하여 唐에 抗拒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편 〈陽玄基墓誌銘〉에 따르면 陽玄基가 고구려 멸망 이후 檢校 東柵州都督府 長史에 임명된 다음 反首領인 高定問 등을 주살하고, 定陽郡公·食邑二千戶에 봉해졌다고 한다(사료 ③-㉔). 전술하였듯이 東柵州都督府는 두만강 유역의 책성지역에 설치한 당의 기미부로 파악된다. 그런데 東柵州都督府의 長史에 임명된 陽玄基가 反首領인 高定問 등을 주살했다고 하므로 高定問 등은 부흥운동을 전개하다가 당의 관인인 陽玄基에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反首領’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高定問은 책성지역의 유력자로 추정된다. 〈陽玄基墓誌銘〉을 통해 책성지역에서도 고구려 부흥운동이 전개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고구려 멸망 이후 고구려 부흥운동은 遼河-鴨綠江이나 西北韓 일대뿐 아니라 松花江 유역의 부여지역과 두만강 유역의 책성지역 등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났고, 靺鞨과의 연대로 일찍부터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고구려 유민의 부흥운동이 고구려 고지 거의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던 것이다.

한편 당은 673년경 황해도 일대에서 고구려 부흥세력을 토벌한 다음, 674년에는 薛仁貴 대신 劉仁軌를 鷄林道大總管으로 삼아 대규모 원정군을 재편성하여 임진강 유역으로 진격했다. 唐이 고구려 고지의 부흥운동을 진압한 다음, 新羅와의 전면전에 착수한 것이다. 이때 唐은 670년 燕山道行軍總管을 맡았던 右領大將軍 李謹行으로 하여금 劉仁軌를 보좌하게 했는데, 東州道行軍總管을 맡았던 高侃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⁶⁴⁾ 이와 관련하여 2015년에 새롭게 알려진 〈高乙德基墓誌銘〉이 주목된다.

- ⑤ 〈高乙德基墓誌銘〉⁶⁵⁾ : 公年纔立志, 仕彼邦官, 受中裏小兄, 任貴端道史. 暨乎, 大唐龍朔元年(661년), 天皇大帝, 勅發義軍, 問罪遼左. 公率兵敵戰, 遂被生擒. 聖上捨其抗拒之愆, 許以歸降之禮. 二年蒙授右衛藍田府折衝長上. 至總章元年(668년), 高麗失政東土, 歸命西朝, 勅以公奉國盡忠, 令檢校本土東州長史, 至咸亨五年(674년), 蒙授左清道率府騎陽府折衝.

62) 『三國志』 권44 蜀書14 姜維전.

63) 孫鐵山, 앞의 글, 1998, 739쪽.

64) 『舊唐書』 권5 고종기하 咸亨5년 2월조.

65) 판독문은 여호규, 「新發見 ‘高乙德基墓誌銘’을 통해 본 高句麗 末期의 中裏制와 中央官制」, 『백제문화』 54, 2016, 255쪽 참조.

高乙德은 본래 ‘貴端道史道使’ 곧 新城 방면의 지방관을 지내다가,⁶⁶⁾ 661년에 唐軍에게 생포된 다음 唐에 투항한 인물이다. 高乙德은 고구려 멸망 이후 本國本土의 ‘檢校 東州長史’에 임명되었다가, 674년(咸亨五年)에 唐 内地의 ‘左清道率府 頻陽府 折衝(都尉)’로 轉任되었다. 高乙德이 역임한 ‘檢校 東州長史’의 ‘東州’를 安東都護府 예하 靺鞨州의 하나로 신라와의 접경지대에 위치했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면서 高侃이 역임한 ‘東州道行軍總管’의 ‘東州’도 이 州府에 기초하여 설정한 行軍路線이며, 고구려 부흥군이나 신라군에 의해 이 지역이 점령당했기 때문에 674년에 高乙德이 唐 内地로 轉任되었다고 추정했다.⁶⁷⁾

이에 대해 高侃의 작전 지역은 遼東의 안시성이었고 대동강 이남에서는 李謹行이 활약했기 때문에 이 견해는 성립할 수 없다며, ‘東州長史’는 특정한 靺鞨州의 屬僚가 아니라 高侃이 지휘한 ‘東州道行軍總管’의 長史를 지칭한다고 파악하기도 한다.⁶⁸⁾ 필자도 高乙德이 역임한 ‘東州長史’의 ‘東州’가 특정 靺鞨州가 아니라 ‘東州道行軍總管’을 지칭한다고 생각한다.⁶⁹⁾ 다만 高侃의 작전지역이 遼東의 안시성 일대에만 국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高侃은 672년 7월에 李謹行과 함께 평양에 주둔해 황해도 방면으로 진격했고, 이해 8월부터 황해도 방면의 白水城(白水山, 재령)이나 橫水(서흥강?) 등지에서 활약했기 때문이다.⁷⁰⁾

高侃이 672년 8월부터 황해도 방면의 작전을 지휘한 것이다. 그런데 673년 윤5월에 李謹行이 瓠盧河(임진강)에서 고구려 부흥군을 격파했다고 하는데,⁷¹⁾ 673년 이후 高侃의 활동은 확인되지 않는다.⁷²⁾ 더욱이 이해 9월에는 당군이 신라를 공격하다가 瓠盧河와 王逢河 등지에서 크게 패배했다.⁷³⁾ 또한 唐이 674년에 薛仁貴 대신 劉仁軌를 鷄林道大總管으로 삼아 신라와의 전면전에 착수했는데, 이때 李謹行의 임무는 燕山道行軍總管에서 鷄林道副總管으로 바뀌었지만, 高侃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675년 2월에는 李謹行이 劉仁軌를 대신해 ‘安東鎮撫大使’로 신라와의 전쟁을 지휘했다.⁷⁴⁾

이렇게 본다면 高侃은 672~673년경까지만 황해도 일대에서 활동하고, 그 이후에는 唐으로 귀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당은 674년에 鷄林道總管府를 鷄林道大總管府로 확대 재편하여 新羅와의 전면전에 착수했는데, 이때 고구려 부흥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편성했던 東州道行軍總管府와 燕山道行軍總管府를 해체한 것으로 추정된다. 李謹行의 임무가 燕山道行軍總管에서 鷄林道副總管으로 바뀐 것은 이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高乙德이 ‘東州長史[東州道行軍總管府의 長史]’에 在任하다가, 674년에 ‘左清道率府 頻陽府 折衝(都尉)’로 轉

66) 고구려 新城 부근을 흐르는 渾河가 당시에는 貴端水로 불리었다(『新唐書』 권220 고려전 영휘 6년조; 『삼국사기』 고구려본기10 보장왕 14년 5월조 참조).

67) 葛繼勇, 「신출토 入唐 고구려인 ‘高乙德墓誌’와 고구려 말기의 내정 및 외교」, 『韓國古代史研究』 79, 2015, 326쪽. 최근 요동주를 지칭한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장병진, 앞의 글, 2016, 114~115쪽).

68) 李成制, 「어느 고구려 무장의 가계와 일대기 - 새로 발견된 ‘高乙德墓誌’에 대한 譯註와 分析」, 『中國古中世史研究』 38, 2015, 206쪽.

69) 胡三省은 『資治通鑑』에 대한 주석에서 “高麗在東, 時而列置州府, 故曰東州道.”라고 한 바 있으며, 東州를 遼東州의 줄임말로 추정하기도 한다(김종복, 앞의 책, 2009, 29쪽).

70) 『三國史記』 권7 문무왕 12년 8월조; 『舊唐書』 권5 고종기하 咸亨3년; 『資治通鑑』 권202 咸亨3년 12월조; 『三國史記』 권22 고구려본기10 寶藏王하.

71) 『舊唐書』 권5 고종기하 咸亨4년 閏五月 丁卯.

72) 이 무렵 高侃이 신라군에게 패배했다고 추정하기도 한다(존 씨 재미슨, 앞의 글, 1969, 5~6쪽).

73) 『三國史記』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3년 9월조.

74) 『資治通鑑』 권202 唐紀18 上元2년 2월조.

任한 것도 東州道行軍總管府를 해체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결국 高乙德이 ‘東州長史’에서 ‘左清道率府 頻陽府 折衝(都尉)’로 轉任된 것은 당이 고구려 부흥운동 진압 작전을 신라와의 전면전으로 전환한 것과 연관이 있다. 〈高乙德墓誌銘〉을 통해 唐이 673년경에 고구려 부흥운동을 거의 진압하고, 674년부터 신라와의 전면전에 착수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新唐書』 고려전의 “於是平壤殘不能軍，相率奔新羅，凡四年乃平”라는 기사는 고구려 부흥운동이 670년에 일어나 673년까지 4년간 전개된 사실을 전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唐은 674년 劉仁軌를 鷄林道大總管으로 삼아 신라와의 전면전에 나섰지만, 675년 9월에 임진강 유역의 매소성에서 李謹行이 이끄는 陸軍이 대패하고, 676년 11월에는 금강 하구의 기벌포에서 薛仁貴가 이끄는 水軍이 대패함에 따라 한반도에서 전면 철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唐은 高句麗 故地에 대한 羈縻政策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唐은 安東都護府에 파견했던 唐의 官人을 철수시키고, 676년 2월에 安東都護府 治所를 遼東城으로 옮겼다가 677년 2월에는 다시 新城으로 옮겼다.⁷⁵⁾ 이와 함께 677년에 寶藏王을 遼東州都督 朝鮮郡王에 임명해 요동으로 귀환시켰으며, 唐의 內地로 강제 이주했던 유민들도 요동으로 귀환시켰다.⁷⁶⁾

唐이 안동도호부에 파견했던 官人을 철수시켰다는 것은 고구려 유민 출신의 羈縻府州 장관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완화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보장왕을 羈縻府州 장관 중 최고위인 요동주도독에 임명하고 조선군왕에 봉했다는 것은 고구려 유민 사회의 자율성을 상당 부분 보장했음을 의미한다. 唐이 羅唐戰爭에서 패배한 다음 종전의 강력한 羈縻支配 정책을 대폭 수정하여 상당히 완화된 羈縻支配 정책을 구사했던 것이다.⁷⁷⁾ 물론 唐이 遼東의 建安城에 熊津都督府를 僑置하고, 唐 內地에 遷徙시켰던 백제 유민도 이곳으로 이주시킨 것으로 보아⁷⁸⁾ 한반도 지역에 대한 병탄 의도를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⁷⁹⁾

오히려 唐이 678년 9월까지도 신라를 정벌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아⁸⁰⁾ 고구려와 백제 유민을 활용해 요동 지역을 안정시킨 다음, 신라 공격의 전초기지로 삼으려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⁸¹⁾ 그렇지만 唐은 고구려 멸망 직후 高句麗 故地에 대한 지배정책을 수립했다가, 유민의 반발에 부딪혀 1년여의 정지작업을 거쳐 670년 1월에야 시행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을 갖고 있는 唐이 고구려 고지에 대한 지배를 고구려 유민 출신 羈縻府州 장관에만 맡겨놓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⑥-㉠ 〈泉男生墓誌銘〉⁸²⁾ : 儀鳳二年(677년), 奉勅存撫遼東, 改置州縣, 求瘼卹隱, 愷負如歸, 劃野疏

75) 『舊唐書』 권19 지리2 安東都護府조: “上元三年二月, 移安東府於遼東郡故城置. 儀鳳二年, 又移置於新城.”

『資治通鑑』 권202 儀鳳元年 2월조: “丁巳, 徙安東都護府於遼東故城. 先是有華人任安東官者, 悉罷之.”

76) 『舊唐書』 권220 열전145 高麗전: 儀鳳二年, 授藏遼東都督, 封朝鮮郡王, 還遼東以安餘民, 先編僑內州者皆原遣, 徙安東都護府於新城.

77) 노태돈, 앞의 글, 1981, 82~83쪽; 김종복, 앞의 책, 2009, 39쪽.

78) 『資治通鑑』 권202 唐紀18 儀鳳2년 2월조: “丁巳, 又以司農卿扶餘隆爲熊津都督, 封帶方王, 亦遣歸安輯百濟餘衆, 仍移安東都護府於新城以統之. 時百濟荒殘, 命隆寓居高麗之境.”

79) 池內宏 486쪽; 日野開三郎 66쪽에서는 安東都護府의 移置를 한반도 지역 포기로 이해하고 있다.

80) 『資治通鑑』 권202 당기18 儀鳳3년 9월 신유조.

81) 노태돈, 앞의 글, 1981, 82쪽; 古畑徹, 1983, 14~18쪽; 김종복, 앞의 책, 2009, 42쪽.

82) 판독문은 朴漢濟, 「고구려 유민 관련 금석문」,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1,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493~496쪽 참조.

疆，奠川知正。以儀鳳四年(679년)正月」廿九日，遘疾薨於安東府之官舍。

⑥-㉔ 〈泉獻誠墓誌銘〉⁸³⁾：調露元年(679년)九月，有制奪禮，充定襄軍討」叛大使，金革無避，非公所能辭也，使還錄功，授上柱國。(중략)垂拱二年」三月奉勅充神武軍大總管，部領諸色兵，西入寇境，公妙閑風角，深達鳥情，山川起伏之形，原野孤虛之」勢，莫不暗符鈴決，洞合胸襟，次迴滿川，賊徒大去，善戰不陣，斯之謂歟。

⑥-㉕ 儀鳳中，高宗授高藏開府儀同三司·遼東都督，封朝鮮王，居安東，鎮本蕃爲主。高藏至安東，潛與靺鞨相通謀叛。事覺，召還，配流邳州，并分徙其人，散向河南·隴右諸州，其貧弱者留在安東城傍。高藏以永淳初卒，贈衛尉卿，詔送至京師，於頡利墓左賜以葬地，兼爲樹碑。(『舊唐書』 권199상 열전 149上 高麗전)

⑥-㉖ 王至遼東，謀叛，潛與靺鞨通，開耀元年(680년)，召還邳州，以永淳初死，贈衛尉卿，詔送至京師，葬頡利墓左 樹碑其阡。(『三國史記』 권22 고구려본기10 寶藏王하)

사료 ⑥-㉔에서 보듯이 唐은 677년에 보장왕을 요동으로 귀환시킴과 동시에 唐軍의 향도를 맡아 고구려 공격의 선봉에 섰던 男生을 요동으로 파견했다. 상기 사료에서 보듯이 男生은 요동으로 파견된 다음 당 황제의 칙명을 받들어 州縣의 개편, 유민 안무, 농경지 획정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⑥-㉔). 사실상 安東都護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파견되기 이전에 安東都護府에서 唐의 官人을 철수시켰고, 679년 安東都護府 관사에서 사망한 사실을 상기하면, 男生은 安東都護 또는 그에 준하는 職任을 띠고 요동에 파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보장왕이 고구려 유민 출신의 靺鞨府州 장관을 대표하는 존재였다면, 男生은 고구려 유민이지만 당 황제의 칙명을 받드는 唐의 官人에 더 가까웠던 것이다.⁸⁴⁾

따라서 唐이 676년 安東都護府의 이치와 함께 靺鞨支配 정책을 완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장왕과 남생으로 대표되는 고구려 유민 세력의 상호 견제를 통해 고구려 고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 했다고 파악된다.⁸⁵⁾ 唐의 이러한 의도는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고구려 유민의 抗拒를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했다. 오히려 요동으로 귀환한 보장왕은 말갈과 연대하여 고구려 부흥운동을 도모했다(⑥-㉕). 보장왕의 부흥운동은 사전에 발각되어 무위로 끝났지만, 唐이 완화된 기미지배 정책과 고구려 유민세력의 상호 견제를 통해서도 고구려 고지를 안정적으로 지배하기 힘들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보장왕이 말갈과 연대하여 부흥운동을 도모한 사실과 함께⁸⁶⁾ 부흥운동을 도모한 시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장왕이 부흥운동을 도모한 시점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료는 없다. 다만 보장왕을 견제하던 男生이 679년 1월 29일에 안동도호부 관사에서 사망했고(⑥-㉔), 보장왕이 680년에 소환되어 邳州로 유배된

83) 판독문은 박한계, 앞의 글, 1992, 519~521쪽 참조.

84) 노태돈, 앞의 글, 1981, 83쪽.

85) 김종복, 앞의 책, 2009, 40~42쪽.

86) 보장왕이 연계를 도모했던 말갈은 대체로 松花江(粟末水) 유역으로 粟末靺鞨로 추정되는데, 당이 보장왕의 부임과 함께 안동도호부의 치소를 요동성에서 신성으로 옮긴 것도 요동의 고구려 유민과 외부인 특히 속말말갈의 교섭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악된다(노태돈, 앞의 글, 1981, 82~83쪽). 말갈이 고구려와 연대해 당에 항거했을 가능성은 〈李他仁墓誌銘〉을 통해 유추할 수 있고, 673년에는 고구려와 말갈이 연대하여 伐奴城을 공격한 사실이 확인된다(『資治通鑑』 권202 당기18 咸亨4년 윤5월조).

사실을 고려하면(⑥-㉔), 남생이 사망한 679년에 부흥운동을 도모했다가 680년에 邳州로 유배 보내졌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679년 9월부터 突厥이 唐에 항거하기 시작하고, 돌궐의 영향을 받은 契丹과 奚가 이해 10월에 營州를 공격한 사실을 고려하면,⁸⁷⁾ 679년 말경에 부흥운동을 도모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⁸⁸⁾

한편 唐은 보장왕의 모반 사건 이후 요동으로 귀환시켰던 고구려 유민을 다시 河南과 隴右 지역으로 강제 천사했으며, 이로 인해 안동도호부 주변(安東城傍)에는 다시 貧弱者만 남게 되었다(⑥-㉔). 고구려 유민 중 당의 기미지배에 抗拒할 소지가 있거나 비협조적인 유력자를 다시 강제 이주시키고, 貧弱者만 남겼던 것이다. 특히 唐은 內地로 이주시킨 고구려 유민들이 結集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州에 분산 배치했다.⁸⁹⁾ 이는 唐이 보장왕의 모반사건을 계기로 고구려 고지에 대한 羈縻政策을 677년 이전 상태로 되돌렸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⑦-㉑ 〈屈突詮墓誌銘〉⁹⁰⁾ : 北庭無事, 既聞三表之功, 東隅未康, 北佇八條之績, 拜銀青光祿大夫安東都護, 臨五部之邊邑, 輯九種之遺黎, 微暘煦而谷春, 巨浪銷而海謐, 風夷雜舞, 陳于上帝之庭. …(중략)…朝廷嘉焉, 復拜安東都護. …(중략)…以載初元年(690년) 八月廿八日, 遘疾終於雍州之旅館, 春秋六十有九.

⑦-㉒ 〈屈突季札墓誌銘〉⁹¹⁾ : 君謂季札, 京兆長安人也. …(중략)…父詮, 營州都督, 瀛州刺史, …(중략)…以開耀元年(681년) 七月廿九日, 隨父任終於遼東之貢州, 時年一十有三, 延陵去國.

사료 ⑦-㉑에서 보듯이 屈突詮은 두 차례나 安東都護를 역임한 다음 690년에 69세로 사망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아들인 屈突季札이 681년 그의 임지인 遼東의 貢州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이다(⑦-㉒). 屈突詮이 681년에 安東都護를 역임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安東都護府 예하의 羈縻州인 貢州에 官人으로서 파견되었다고 파악할 수 있다. 이는 唐이 보장왕의 모반사건을 계기로 唐의 官人을 철수시켰던 종전 정책을 재수정하여, 680년 보장왕의 소환과 더불어 다시 安東都護府에 唐의 官人을 파견했음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唐은 여러 羈縻府州들을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인 遼東의 朝鮮郡王府도 폐지했다.

결국 唐은 동방지역의 정세에 따라 기미지배 정책의 강약을 조절했지만, 고구려 고지에 대한 안정적 지배 기반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고구려 고지에 대한 당의 지배기반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주변 정세의 변동에 따라 당의 기미지배 체제는 언제든지 와해될 소지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突厥의 復興과 契丹의 興起로 唐의 주변 정세가 요동치던 680~690년대 고구려 유민의 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87) 정재훈, 『돌궐유목제국사』, 사계절, 2016, 397~401쪽.

88) 김중복, 앞의 책, 2009, 53~55쪽.

89) 『唐六典』 권5 尙書兵部: “凡關內團結兵, 京兆府六千三百二十七人, 同州六千七百三十六人, 華州五千二百二十三人, 蒲州二千七百三十五人, 秦·成·岷·渭·河·蘭六州有高麗·羌兵.”

90) 관독문은 『全唐文補遺』; 권덕영 외, 앞의 책, 2015, 117쪽 참조.

91) 관독문은 『全唐文新編』; 권덕영 외, 앞의 책, 2015, 113쪽 참조.

Ⅲ. 680~690년대 唐의 동방정책과 高句麗 遺民의 동향

1. 680년대 唐의 突厥 防禦戰과 高句麗 遺民의 動員

630년 동돌궐의 패망과 함께 고비사막 남쪽으로 移置되었던 突厥은 吐蕃과 西突厥의 흥기에 자극받아 67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唐에 항거하기 시작했다. 契丹과 奚도 돌궐의 영향을 받아 679년 10월 唐에 抗拒했지만, 곧바로 평정되고 696년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다. 그렇지만 突厥은 唐의 北方을 지속적으로 공략하다가, 687년에는 당의 추격을 따돌리고 고비사막 북쪽으로 이동하여 몽골초원에 새로운 근거지를 마련했다. 이로써 북방지역에 대한 당의 기미지배 체제는 붕괴되기 시작했고,⁹²⁾ 다각적인 질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⁹³⁾

이에 唐은 한반도 방면으로의 진격을 포기하는 대신,⁹⁴⁾ 唐의 內地로 천사시킨 고구려 유민을 突厥을 방어하는데 적극 동원했다. 唐이 突厥 防禦戰에 고구려 유민을 동원하던 양상은 유민묘지명을 통해 비교적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⑧-㉔ 〈高質墓誌銘〉⁹⁵⁾ : 咸亨元年(670년), 奉○○○勅差邏娑·涼州, 鎮守燕山·定襄道行. 亟忽軍麾, 荐持戎律. 攻城野戰, 陷敵摧堅. 累效殊功, 爰加懋賞. 永隆二年(681년), ○○○制除左威衛將軍, 又奉○○○勅單于道行. 文明年中(684년), 充銀勝道安撫副使. 光宅元年(684년), ○○○制封柳城縣開國子, 食邑四百戶.

⑧-㉕ 〈泉獻誠墓誌銘〉⁹⁶⁾ : 調露元年(679년) 九月, 有制奪禮, 充定襄軍討叛大使, 金革無避, 非公所能辭也, 使還錄功, 授上柱國. …(중략)…垂拱二年(686년) 三月奉勅充神武軍大總管, 部領諸色兵, 西入寇境, 公妙閑風角, 深達鳥情, 山川起伏之形, 原野孤虛之勢, 莫不暗符鈴決, 洞合胸襟, 次廻滿川, 賊徒大去, 善戰不陣, 斯之謂歟.

⑧-㉖ 〈高玄墓誌銘〉⁹⁷⁾ : 至垂拱二年(686년) 二月, 奉○勅差行, 爲神武軍統領. 三年(687년) 四月, 大破賊徒, 薊北振其英聲, 燕南仰其餘烈. 俄而蒙授右玉鈴衛中郎將. 又以永昌元年(689년), 奉○勅差令諸州簡高麗兵士. 其年(689년) 七月, 又奉○勅簡洛州兵士, 便充新平道左三軍總管, 征行. 天授元年(690년) □月九日, ○恩制改授左豹韜衛行中郎將.

92) 김호동, 「당의 기미지배와 북방 유목민족의 대응」, 『역사학보』 137, 1993, 168쪽.

93) 정재훈, 앞의 책, 2016, 414쪽. 돌궐의 흥기에 대해서는 정재훈, 앞의 책, 2016, 397~440쪽 참조.

94) 唐이 신라 정토 의지를 표명한 것은 678년 9월이 마지막이다(『資治通鑑』 권202 당기18 儀鳳3년 9월). 그 이후 돌궐의 흥기에 따른 정세변화로 한반도 방면으로의 진격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95) 판독문은 『全唐文補遺(千唐誌齋新藏專輯)』; 『洛陽出土少數民族墓誌匯編』; 王化昆, 「武周高質墓誌考略」, 『河洛春秋』 2007-3; 閔庚三, 「신술토 高句麗 遺民 高質 墓誌」, 『신라사학보』 9, 2007; 拜根興, 「高句麗 遺民 高性文·高慈 父子 墓誌의 考證」, 『忠北史學』 22, 2009; 趙振華·閔庚三, 「唐高質高慈父子墓誌研究」, 『東北史地』 2009-2; 拜根興, 『唐代高麗百濟移民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2 등 참조.

96) 판독문은 박한제, 앞의 글, 1992, 519~521쪽 참조.

97) 판독문은 『唐代墓誌彙編續集』; 『唐代墓誌彙編附考(11책)』; 『全唐文補遺(第二輯)』; 『洛陽出土少數民族墓誌匯編』; 宋基豪, 「고구려 유민 高玄 墓誌銘」, 『서울大學校博物館年報』 10, 1998 등 참조.

⑧-㉔ 〈高足西墓誌銘〉⁹⁸⁾ : 旣而 崑山動祲, 紫塞驚塵, 甘泉見烽, 火之輝, ○○天子下徵兵之令. 大周, 天授元年(690년), 拜公爲鎮軍大將軍, 行左豹韜衛大將軍. 登壇受策, 禮逾韓信, 野戰頻勝, 事逸張飛. 眷彼二蕃, 如湯沃雪, 觀茲再舉, 疑是神行. 長城, 絕飲馬之篇, 萬里罷輪臺之戍.

사료 ⑧-㉔에 따르면 高質은 고구려 멸망 직후인 670년에 遼娑와 涼州로 가서 燕山·定襄道 行軍을 鎮守했다고 한다. 670년 4월에 吐蕃이 白州 등 18주를 함락시키자 唐이 薛仁貴를 遼娑道行軍大總管으로 삼아 토번을 공격했다가, 설인귀가 대패하자 윤8월에 다시 좌상 姜恪을 涼州道行軍大總管으로 삼아 토번을 방어하게 했다.⁹⁹⁾ 이로 보아 ‘遼娑와 涼州로 나아가’라는 표현은 高質이 遼娑道行軍과 涼州道行軍에 편성되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燕山·定襄道라는 명칭은 돌궐 방면과 연관된 것이므로, 이때 高質은 吐蕃戰보다는 突厥의 남하에 대비하는 군대에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¹⁰⁰⁾ 고구려 유민 출신 장수를 돌궐 방어전에 투입한 가장 이른 사례인 것이다.

돌궐이 679년 10월 唐에 항거하며 본격적으로 부흥을 도모하자, 당은 이해 11월에 裴行儉을 定襄道大總管으로 삼아 토벌에 나섰다.¹⁰¹⁾ 이때 泉獻誠은 부친 男生의 사망으로 喪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奪禮 制書를 받고 定襄軍討叛大使에 임명되어 돌궐 방어전에 참전했다(⑧-㉔). 泉獻誠이 裴行儉의 定襄道大總管府에 편성되어 돌궐 방어에 투입된 것이다. 고구려 유민 출신 장수가 돌궐 방어전에 본격적으로 동원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인데, 喪中이던 泉獻誠에게 奪禮 制書를 내릴 정도로 唐의 상황이 긴박했음도 보여준다. 이때부터 돌궐은 거의 매년 唐의 북방을 공략했으며, 唐도 대규모 원정군을 편성해 대응했다.

681년에는 高質이 종3품 左威衛 將軍으로 제수된 다음, 單于道 行軍의 조직을 받들어 돌궐 토벌에 나섰다(⑧-㉔). 다만 681년에는 돌궐이 原州와 慶州 등을 공격하자, 당이 裴行儉을 定襄道行軍大總管으로 삼아 토벌에 나섰다.¹⁰²⁾ 그리고 당은 683년 11월과 684년 9월에 걸쳐 程務挺을 單于道按撫大使로 삼아 돌궐 토벌에 나선 바 있다.¹⁰³⁾ 그러므로 〈高質墓誌銘〉의 연도가 정확하다면 高質은 681년에 定襄道行軍大總管府에 편성되어 돌궐 공략에 나섰고, 行軍의 명칭이 정확하다면 683년에 單于道按撫大使 程務挺이 이끄는 원정군에 참전했다고 추정된다.¹⁰⁴⁾ 전자의 가능성이 높지만, 후자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

高質은 684년에도 銀勝道 安撫副使에 증원되어 돌궐 방어전에 참전했다. ‘銀勝道’는 지금의 陝西省 橫山縣 일대에 설치했던 銀州 및 內蒙古 准格尔旗 東北 일대에 설치했던 勝州와 연관된 行軍 명칭으로 보인다. 684년 7월에 돌궐이 朔州 일대를 공격하자, 唐이 左威衛 大將軍 程務挺으로 하여금 방어하게 했는데,¹⁰⁵⁾ 당시

98) 판독문은 『唐代墓誌彙編續集』; 『全唐文補遺(第五輯)』; 『洛陽新獲墓誌』; 『洛陽出土少數民族墓誌匯編』; 拜根興, 「高句麗 遺民 高足西 墓誌銘」, 『中國史研究』 12, 2001; 李文基, 「高句麗 遺民 高足西 墓誌의 檢討」, 『歷史教育論集』 26, 2000 등 참조.

99) 『舊唐書』 권5 高宗하 咸亨원년; 『資治通鑑』 권201 당기17 咸亨원년.

100) 趙振華·閔庚三, 앞의 글, 2009, 27쪽.

101) 『舊唐書』 권5 高宗하 調露원년 11월조.

102) 『舊唐書』 권5 高宗하 永隆 2년 춘정월조.

103) 『新唐書』 권3 고종하 弘道원년 11월조 및 권4 측천무후기 光宅원년 9월조.

104) 高質이 684년에는 銀勝道 安撫副使에 증원되었으므로 單于道로 출정했을 가능성이 없다.

105) 『舊唐書』 권6 측천후후 文明원년 7월조.

高質의 직임이 程務挺과 같은 소속의 左威衛 將軍이라는 점에서 程務挺의 지휘를 받으며 출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고질은 이때 세운 전공으로 684년 11월 29일에 柳城縣開國子 食邑 4백호에 책봉되었다.

686년 2월에는 高玄이 神武軍 統領에 임명되었고(⑧-㉔), 이해 3월에는 泉獻誠이 神武軍 大總管에 임명되었다(⑧-㉕). 神武軍은¹⁰⁶⁾ 代州(山西省 代縣) 북쪽에 설치한 守捉兵인데, 본래 大同軍으로 불리다가 680년에는 神武軍, 691년에는 平狄軍으로 改稱되었다.¹⁰⁷⁾ 高玄과 泉獻誠은 686년에 1개월의 시차를 두고 代州 북쪽에 위치한 神武軍의 지휘관으로 임명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神武軍의 지휘관에 임명되기 직전인 685년 3월에 突厥이 代州를 공략했다는 점에서 돌궐 방어의 최전선에 투입되었다고 파악된다.

그런데 泉獻誠이 神武軍 大總管이었다는 점에서 高玄은 泉獻誠의 지휘를 받아 임무를 수행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하여 泉獻誠이 神武軍 大總管으로 ‘諸色兵’을 거느린 점이 주목된다. 色兵은 이민족 출신의 병사를 지칭하는데, ‘諸色兵’이라 했으므로 ‘여러 이민족’ 출신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泉獻誠의 지휘를 받은 高玄은 ‘諸色兵’ 중 고구려 유민 출신 병사를 지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唐이 686년을 전후해 이민족 출신 병사를 돌궐 방어전에 적극 활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에서 그동안 吐蕃戰에서 활약했던 백제 유민 출신의 黑齒常之가 686년부터 돌궐 방어전에 투입된 사실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黑齒常之는 687년 8월에는 燕然道行軍大總管으로 돌궐 방어전을 총지휘하기도 했다.¹⁰⁸⁾

唐이 고구려 유민을 돌궐 방어전에 조직적으로 동원한 사실은 <고현묘지명>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高玄은 689년 직명을 받들어 여러 州에서 고구려 병사를 선발하고, 7월에는 다시 洛州의 병사를 선발한 다음, 新平道左三軍總管에 임명되었다고 한다(⑧-㉔). 唐은 689년 5월에 薛懷義를 新平道行軍大總管으로 삼아 突厥을 공격했으며, 8월에 다시 그를 新平道中軍大總管으로 삼아 돌궐을 공격한 바 있다.¹⁰⁹⁾ 그러므로 高玄이 여러 州에서 고구려 병사를 선발하고, 7월에 洛州의 병사를 선발해 突厥 원정군을 편성했다고 파악된다.

전술했듯이 唐은 679년경 보장왕의 모반사건을 계기로 高句麗 故地의 유민을 다시 內地로 강제 이주시켰다. 이때 고구려 유민의 결집을 방지하기 위해 각 州에 분산 배치했는데, 8세기 초에도 關內의 6개 주에 고구려 병사를 團結兵으로 분산시켜 놓은 사실이 확인된다.¹¹⁰⁾ 이로 보아 高玄은 689년에 唐의 각 州에 분산 배치된 고구려 유민 출신 병사를 선발해 돌궐 방어군을 편성했다고 파악된다. 즉 高玄이 689년 8월 新平道左三軍總管의 임무를 수행할 때는 唐 內地로 강제 遷徙된 고구려 유민 출신 병사를 통솔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료 ⑧-㉔에 따르면 690년 변경지방의 소요로 인해 징병령이 내려졌는데, 高足西는 鎮軍大將軍 行左豹韜衛大將軍에 임명되어 二蕃 토벌에 나섰다고 한다. 이때 고현도 高足西와 소속이 같은 左豹韜衛의 行中郎將으로 참전했다고 하므로 高足西의 지휘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토벌 대상인 二蕃을 武則天 시기의

106) 唐의 神武軍으로 北衙十軍에 속한 禁軍 조직도 있지만, 738년(開元 26년)에 羽林軍을 나누어 설치한 것이므로 高玄의 활동시기와 맞지 않는다(『新唐書』 권49상 百官志 左右神武軍).

107) 『新唐書』 권39 地理志3 河東道 代州 雁門郡조.

108) 『資治通鑑』 권203 垂拱2년 9월조 및 『新唐書』 권4 睿宗紀 垂拱3년 8월조.

109) 『新唐書』 권4 睿宗紀 永昌元年 5월조 및 8월조.

110) 『唐六典』 권5 尚書兵部.

대외관계를 고려하여 돌궐과 거란으로 상정하기도 한다.¹¹¹⁾ 그렇지만 <고족유묘지명>에 따르면 唐 서쪽의 충령과 천산, 북방의 만리장성 일대에서 夷狄이 침공했다고 하며, 高足西 휘하의 高玄이 주로 돌궐 방어전에 서 활약한 사실을 고려하면, 당시 唐을 거세게 공격하던 突厥과 吐蕃일 가능성이 높다.

이상을 통해 唐이 680년대 돌궐 방어전에 고구려 유민 출신 장수를 적극 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686년에는 泉獻誠과 高玄이 神武軍의 大總管과 統領, 690년에는 高足西와 高玄이 左豹韜衛의 大將軍과 行中郎將 등으로 각기 동시에 임명되어 상하 지휘 관계를 이루었는데, 이는 당이 고구려 유민을 돌궐 방어전에 조직적으로 동원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¹¹²⁾ 실제 689년 高玄이 唐의 각 州에 분산 배치된 고구려 유민 출신 병사를 선발해 돌궐 방어전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唐이 보장왕의 모반사건을 계기로 內地로 다시 강제 遷徙시켰던 고구려 유민을 686년경부터 突厥 防禦戰에 조직적으로 동원했던 것이다.

다만 이때 唐이 高句麗 故地의 遺民을 돌궐 방어전에 동원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돌궐 방어전이 주로 高句麗 故地와 멀리 떨어진 唐의 북방 지역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이지만, 징병에 따른 불만으로 高句麗 遺民이 동요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또한 돌궐의 흥기에 따른 정세변동이 고구려 고지로 파급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686년에 보장왕의 손자인 高寶元을 朝鮮郡王에 封한 사실이 주목된다.¹¹³⁾ 唐이 686년경부터 高句麗 遺民을 돌궐 방어전에 대거 동원한 사실을 고려하면, 이해에 朝鮮郡王府를 부활시킨 것은 高句麗 故地에 남은 遺民의 동요를 예방하기 위한 慰撫策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高句麗 故地에 대한 당의 지배기반이 여전히 불안정했음을 반영한다.

2. 690년대 契丹의 부흥운동과 高句麗 遺民의 동향

696년 5월 松漠都督 李盡忠과 刺史 孫萬榮의 舉兵으로 契丹의 부흥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때 遼西와 遼東 地域의 고구려 유민도 부흥을 도모했을 텐데, 이를 검토하기 위해 먼저 契丹의 부흥운동 전개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¹⁴⁾

李盡忠과 孫萬榮은 696년 5월에 唐에 반기를 들고 營州都督 趙文翽를 죽인 다음, 遼西의 營州 일대를 점거했다. 唐이 696년 5월 曹仁師 등 28장군을 보내 거란 공략에 나섰지만, 8월에 灤河-大凌河 분수령의 西硤石谷에서 참패했다. 이에 唐은 9월에 募兵 制書를 내리는 한편,¹¹⁵⁾ 武攸宜를 清邊道行軍大總管에 임명하여 契丹 토벌에 착수했지만, 군사를 모집하는 일이 여의치 않았다. 이때 突厥의 默啜可汗이 ‘唐과의 혼인 및 河西지역 降胡의 반환’을 조건으로 契丹 토벌을 돕겠다고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거란의 배후를 습격하도록 밀약을 맺었다.

111) 이문기, 앞의 글, 2000, 464쪽.

112) 최근 이규호, 앞의 글, 2016, 167쪽에서도 고구려 출신 변장과 병사의 연계성을 간략히 언급했다.

113) 『舊唐書』 권199상 열전 149上 高麗전: “垂拱二年, 又封高麗孫寶元爲朝鮮郡王.”

114) 契丹의 흥기와 이에 대한 唐의 대응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은 『舊唐書』 권199하 열전149하 契丹전; 『通典』 권200 契丹전; 『資治通鑑』 권205와 권206 萬歲通天 원년-久視원년의 관련 기사 참조.

115) 『資治通鑑』 권205 萬歲通天 원년 9월조: “制: 天下系囚及土庶家奴驍勇者, 官償其直, 發以擊契丹.”

696년 10월 李盡忠의 病死로 거란 세력이 일시 약화되었지만, 孫萬榮이 다시 部落을 통솔하며 唐의 冀州, 瀛州 등을 공격했다. 이로써 孫萬榮은 세력을 재규합하는데 성공했지만, 당 공격을 위해 본영을 비웠다가 突厥의 공격을 받아 李盡忠와 자신의 가족이 노획되고 물자도 약탈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唐은 契丹을 공략한 默啜可汗을 特進·頡跌利施大單于·立功報國可汗에 책봉했지만, ‘唐과의 혼인과 降戶 반환’이라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돌궐은 다시 697년 1월에 靈州와 勝州를 공격하며 唐에 반기를 들었다.

孫萬榮도 거란의 잔여 세력을 규합하여 697년 3월에 冀州를 공격하여 刺史 陸寶積을 살해했다. 그리고 武攸宜 휘하의 淸邊道總管 王孝傑과 蘇宏暉 등이 17만 대군을 거느리고 거란 토벌에 나서자, 이들을 灤河-大凌河 분수령의 東硤石谷으로 유인하여 王孝傑을 전사시키는 등 대파했다.¹¹⁶⁾ 孫萬榮이 승전의 여세를 몰아 幽州를 공격하자, 武攸宜가 裨將을 파견해 방어했지만 패배했다. 당으로서는 다시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이에 唐은 默啜可汗과 “6州 降胡의 반환, 單于都護府 지역 반환, 각종 물자의 제공(穀食과 種子 10만곡, 雜彩 5만단, 농기구 3,000구, 무쇠 수만근)”을 조건으로 契丹 토벌을 위한 밀약을 맺었다. 그리고 697년 4월에는 河內郡王 武懿宗을 神兵道行軍大總管으로 삼고 右豹韜衛將軍 何迦密을 출정시켜 거란 토벌에 나섰고, 이해 5월에는 樓師德을 淸邊道副大總管, 백제 유민인 沙吒忠義를 (淸邊中道) 前軍總管으로¹¹⁷⁾ 삼아 20만을 이끌고 거란을 공격하게 했다. 唐이 돌궐과의 밀약을 바탕으로 契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이에 손만영도 당군을 방어하기 위해 남쪽으로 출정했는데, 영주에 있는 본영은 매부인 乙冤羽에게 맡겼다.

697년 6월 唐의 武懿宗은 趙州까지 진격했다가 거란군이 冀州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는 相州로 퇴각했다. 이에 거란군은 趙州를 공략하고 幽州로 진격했다. 이때 孫萬榮은 배후를 걱정하여 默啜可汗에게 함께 唐을 공격하자고 제안했는데, 이 제안이 오히려 거란의 약점을 노출시켰다. 그리하여 거란은 돌궐과 당의 공격을 받아 패배하고, 피신했던 孫萬榮도 수하의 노비에 의해 살해당했다. 1년여에 걸친 契丹의 흥기가 막을 내린 것인데, 돌궐의 주도하에 거란군이 격파된 이후 거란과 해는 돌궐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¹¹⁸⁾

이로써 契丹의 흥기는 일단락되었다. 그렇지만 돌궐이 唐의 군사력 약화를 간파하고 더욱 거세게 공략하여 700년경에는 유목제국의 위상을 회복했다.¹¹⁹⁾ 또한 高句麗 遺民들도 靺鞨과 연합하여 698년에 발해를 건국했다. 이렇게 본다면 696년 契丹의 부흥운동 이후 고구려 고지의 유민들도 다시 부흥을 도모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와 관련한 상황을 전하는 문헌사료는 거의 없다. 오히려 契丹이 擧兵한 다음 요동진출을 시도했는데, 安東都護府나 그 예하 靺鞨府州의 장수들이 이를 봉쇄했다는 단편적인 사료만 전할 뿐이다.

가령 696년 9월경에 契丹이 安東都護府를 포위했는데, 安東都護 裴玄珪가 막아냈다고 한다.¹²⁰⁾ 또한 696년 연말 또는 697년 1월경에 遼東都督 高仇須가 契丹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한다. 이에 거란 토

116) 唐軍이 契丹軍에게 대패해 王孝傑이 전사한 것은 3월 庚子일(4일; 『陳伯玉文集』 권7 〈國殤文一首〉) 또는 戊申일(12일; 『資治通鑑』 권206 神功元년 3월조)이고, 蘇宏暉가 피신했던 幽州에 도착한 것은 4월 6일이다(『陳伯玉文集』 권4 謝衣表).

117) 697년 3월에 戰死한 王孝傑의 직임이 본래 淸邊中道前軍總管(『陳伯玉文集』 권4 〈奏白鼠表〉)이었다는 점에서 沙吒忠義는 王孝傑을 대신해 淸邊中道前軍總管에 보임된 것으로 파악된다.

118) 『舊唐書』 권194상 열전144상 돌궐전: 契丹及奚自神功(697년)之後, 常受其徵役.

119) 정재훈, 앞의 책, 2016, 434~440쪽.

120) 『舊唐書』 권59 열전9 許欽寂전; 『資治通鑑』 권205 萬歲通天 원년 9월 丁巳조.

별전을 충지휘하던 淸邊道行軍大總管 武攸宜가 697년 1월 말에 高仇須에게 勝戰을 치하하는 서신을 보내는 한편,¹²¹⁾ 安東都護府 예하 靺鞨府州의 장관과 속료에게도 거란과의 전투를 독려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한다.¹²²⁾ 특히 武攸宜는 高仇須에게 보낸 서신에서 697년 2월에 蕃漢의 정예병 40만을 진격시켜 거란을 토벌할 계획인데, 이때 중랑장 薛訥로 하여금 5만의 蕃漢 정예병을 이끌고 海路를 통해 東進할 것이라고 밝혔다.¹²³⁾

그런데 武攸宜는 697년 3월에 王孝傑과 蘇宏暉 등으로 하여금 17만 대군을 거느리고 거란을 토벌하도록 했다가 東硤石谷에서 대패한 바 있다. 이로 보아 武攸宜가 高仇須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은 697년 3월에 실행된 거란 토벌 작전을 지시한 것이라고 파악된다. 즉 자신이 직접 40만 大軍을 이끌고 평주 방면에서 진격하고, 海路로는 薛訥을 파견해 거란을 공격할 계획이니, 遼東都督 高仇須도 薛訥의 작전을 지원하라는 것이다.¹²⁴⁾ 이는 唐이 海路를 통해 요동방면에서도 거란토벌 작전을 수행했을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요동방면에서 이루어진 당의 거란 토벌 작전이나 고구려 유민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문헌사료는 거의 없다.

다만 武攸宜의 參謀였던 陳子昂이 거란이 안동도호부를 공략할 것을 우려한 것을 보면,¹²⁵⁾ 거란의 부흥운동은 고구려 유민 사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神兵道行軍大總管 武懿宗 등은 則天武后에게 올린 戰勝 上表文(露布)에서 “작년(696년 8월)에 군사를 일으켰다가 一軍이 盡滅당했고, 금년 봄(697년 3월)에는 적군을 가볍게 보다가 3군의 장수가 돌아오지 못했다. 적의 무리가 번성해지고 적의 군사력이 더욱 강성해져 山戎과 결탁하여 서쪽으로 침공하고, 島夷와 연대하여 동쪽으로 진입했다”고 언급했다.¹²⁶⁾ 여기의 島夷는 본래 중국의 東海岸이나 海島에 거주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인데, 7세기 중후반에는 고구려를 지칭하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武懿宗 등의 戰勝 上表文은 요동지역의 고구려 유민들이 거란과 연대하여 당에 항거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은 697년 3월 契丹 토벌에 앞서 武攸宜가 거행한 禱祭의 祭文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武攸宜는 祭文에서 “거란의 흉악한 무리들이 감히 하늘의 도리를 어지럽히니, 별떼가 丸山에 모여들었고, 돼지들이 遼野를 잠식했다”고 언급했다.¹²⁷⁾ 丸山은 고구려의 환도성, 遼野는 요동평원을 뜻하지만, 당시 정세와 연관시켜 본다면 요동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고구려 고지를 지칭한 표현으로 추정된다. 거란이 부흥운동을 일으킨 이후, 고구려 유민도 결집해 요동지역을 잠식했다는 것이다. 결국 거란이 696년 5월 당에 반기를 든 직후, 고구려 유민들도 이에 호응하여 당에 항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러므로 武攸宜가 697년 2~3월경 海路를 통해 薛訥을 파견하려고 한 계획은 거란 토벌 작전을 지원하는

121) 『陳伯玉文集』 권10 書啓 〈爲建安王與遼東書〉.

122) 『陳伯玉文集』 권10 書啓 〈爲建安王與安東諸軍州書〉.

123) 노태돈, 앞의 글, 1981, 84~85쪽; 김중복, 앞의 책, 2009, 64~65쪽.

124) 노태돈, 앞의 글, 1981, 84쪽.

125) 『陳伯玉文集』 권8 雜著 〈上軍國機要事〉

126) 『文苑英華』 권647 〈張說爲河內郡王武懿宗平冀州賊契丹等露布〉: “去歲嘗師, 疑一軍之盡化, 今春輕敵, 見三帥之不歸. 蟻聚實繁, 豺牙益厲, 結山戎以西寇, 連島夷而深(東)入.”

127) 『陳伯玉文集』 권7 〈禱牙文〉: “萬歲通天二年三月朔日, 淸邊道大總管建安郡王某, 敢以牲牢告軍牙之神…(중략)…契丹凶羯, 敢亂天常, 乃蜂聚丸山, 豕食遼野.”

측면도 있지만, 요동지역 고구려 유민의 동향과도 연관된다고 추정된다. 다만 697년 2~3월경에 海路를 통해 薛訥을 파견하려던 계획이 실행되었는지, 또 고구려 유민의 동향과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전하는 문헌사료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부자 관계인 〈高質墓誌銘〉과 〈高慈墓誌銘〉이 주목된다.

⑨-㉠ 〈高質墓誌銘〉¹²⁸⁾ : 既而林胡作梗, 榆塞驚塵, 弼鎬起於邊亭, 穀騎橫於朔野. ○○○大君當宁, 按龍劍而發雷霆, 驍將鑿門, 擁虹旗而驟雲雨. ○○○制命, 公爲瀘河道討擊大使, 仍充清邊東軍惣管. 公肅承○○○玄旨, 電發星駟, 徑度滄波, 選徒徵騎. 雖貊虎叶志, 損甲者爭馳, 而蜂蟻盈途, 提戈者未集. 公以二千餘兵, 擊數萬之衆, 七擒有效, 三捷居多.」萬歲通天二年(697년)正月, ○○○制除左玉鈐衛大將軍·左羽林軍上下. 公撫巡士衆, 推以赤心, 宣布威恩, 得其死力, 解衣推食, 惇釐感惠而守陴, 挾纊投醪, 童孺銜歡而拒敵. 上聞○○○旒戾, 特降○○○恩徽, 有○○○勅稱之曰, “高性文既能脫衣, 招撫遠藩, 宜內出衣一副, 并賜物一百段. 又性文下高麗婦女三人, 固守城隍, 與賊苦戰, 各賜衣服一具, 并寶物卅段.” 但兇狂日熾, 救援不臻, 衆寡力殊, 安危勢倍. 城孤地絕, 兵盡矢窮, 日夜攻圍, 卒從陷沒, 爲虜所執, 詞色慄然, 不屈兇威, 遂被屠害. 以萬歲通天二年五月廿三日, 薨於磨米城, 春秋七十有二.

⑨-㉡ 〈高慈墓誌銘〉¹²⁹⁾ : 萬歲通天元年五月, 奉勅差, 父充瀘河道討擊大使, 公奉勅從行, 緣破契丹功, 授壯武將軍, 行左豹韜衛翊府郎將, 添跡中權, 立功外域, 既等耿恭之寄旌, 露來歙之榮, 尋以寇賊憑陵, 晝夜攻逼, 地孤援闕, 糧盡矢殫, 視死猶生, 志氣彌勵, 父子俱陷, 不屈賊庭, 以萬歲通天二年(697년)五月廿三日, 終於磨米城南. 春秋卅有三.

전술했듯이 高質은 돌궐 방어전에 여러 차례 투입된 바 있는데, 696~697년에는 契丹(林胡) 토벌전에 참전했다. 高質은 696년 5월에 瀘河道 討擊大使에 임명되었다가(⑨-㉠), 다시 清邊東軍惣管을 맡았다. 이때 高質은 2천 여 명의 군사로 수 만 명을 대적하는 전공을 세워 697년 정월에 左玉鈐衛 大將軍 및 左羽林軍 大將軍 [上下]을 제수받았다. 이때 부친을 따라갔던 高慈도 전공을 세워 壯武將軍 行左豹韜衛翊府郎將을 수여받았다. 그 뒤 高質은 병사와 백성들을 巡撫하면서 死力을 다해 싸웠으나, 적군은 나날이 더욱 강성해지고 원병의 손길은 이르지 않아 衆寡不敵으로 형세가 악화되었다. 결국 주둔하던 성곽이 함락당하고, 高質과 高慈父子 모두 생포되어 697년 5월 24일에 磨米城 남쪽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전술했듯이 唐은 거란의 항거가 일어난 696년 5월에 曹仁師 등 28장군을 보내 거란 공략에 나섰다. 이에 8월에 曹仁師 등이 西硤石谷에서 참패하자, 9월에는 武攸宜를 清邊道行軍大總管에 임명하여 토벌군을 재편성했다. 이로 보아 高質은 696년 5월에는 曹仁師 등 28장군으로 편성된 거란 토벌군에 瀘河道 討擊大使로 참전했고, 696년 9월에는 武攸宜가 이끄는 清邊道行軍大總管府의 清邊東軍惣管으로 참전했다고 파악된다.¹³⁰⁾

그런데 高質이 ‘瀘河道 討擊大使’와 ‘清邊東軍惣管’으로 활약한 것에 대해 “푸른 바다를 최단 거리로 건너

128) 판독문은 ⑧-㉠의 각주 참조.

129) 판독문은 박한제, 앞의 글, 1992, 510~512쪽 참조.

130) 拜根興, 앞의 글, 2009, 16~17쪽.

무리 속에서 기병을 선발했다.”고 한다. 高質은 陸路가 아니라 海路로 진격해 募兵의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瀟河道’와 ‘淸邊東軍’이라는 行軍의 명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瀟河는 612년 隋 煬帝가 고구려를 정벌할 때 병참 보급기지를 설치했던 瀟河鎮을 지칭하는데, 遼河 河口 서쪽의 遼寧省 錦州市 일대로 비정된다. 이는 高質이 海路를 통해 거란의 동쪽인 遼河 하류 일대로 파견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淸邊東軍’이라는 行軍 명칭도 이러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唐은 679년 11월 突厥을 토벌하기 위한 定壤道 行軍大總管府를 편성하면서 定壤道 西軍과 東軍을 각기 별도로 설치한 바 있다.¹³¹⁾ 698년에도 突厥을 공격하기 위한 天兵道行軍總管府를 편성하면서 中道大總管, 西道總管, 東道總管으로 구성해 설치했다.¹³²⁾ 이로 보아 696년 9월에 편성된 淸邊道行軍도 中軍(中道), 西軍(西道), 東軍(東道) 등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실제 中軍(中道)과¹³³⁾ 西軍(西道)의¹³⁴⁾ 사례가 확인된다. 高質은 淸邊道行軍大總管府 예하의 3軍 중 주로 동쪽 지역을 담당한 ‘淸邊道 東軍’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高質이 海路를 통해 진격해 임무를 수행했고, 본래 遼河 하류와 연관된 ‘瀟河道 討擊大使’에 임명된 사실을 고려한다면, 淸邊道 東軍의 주요 임무는 海路를 통해 遼河 유역으로 건너가 거란 토벌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었다고 파악된다. 高質의 주요 작전 지역은 高句麗 故地인 요동지역이었다고 추정되는데, 高質이 아들 高慈와 함께 磨米城에서 전사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반영한다. 磨米城은 唐 太宗이 645년에 공취했다는 ‘玄菟, 橫山, 蓋牟, 磨米, 遼東, 白巖, 卑沙, 麥谷, 銀山, 後黃’ 등 10성의 하나로도 나온다.¹³⁵⁾ 645년 唐軍의 진공로와 비교하면 위의 城郭은 함락 순서에 따라 기재되었는데, 磨米城은 당군이 개모성을 점령한 다음 요동성·백암성 공격에 앞서 함락시킨 성에 해당한다. 이로 보아 磨米城은 瀋陽 塔山山城(개모성)과 백암성 사이에 위치한 本溪 邊牛山城일 가능성이 높다.¹³⁶⁾

결국 高質은 696년 하반기에 海路를 통해 高句麗 故地인 遼東地域으로 파견되어 거란 토벌을 위해 고구려 유민을 募兵하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파악된다.¹³⁷⁾ 묘지명의 “高性文[高質]이 이미 옷을 벗어주어 遠藩을 招撫했다”라는 명문도 이를 반영한다. 그런데 高質의 募兵 양상에 대해 “豹과 虎가 뜻이 맞았지만 갑옷을 입은 자들은 다투어 달려왔다. 다만 벌과 전갈이 길을 짝 메워 창을 든 자들이 모이지 않았다. 이에 공은 2천여 명의 병사로 수 만 명의 무리를 격파했다”고 기술했다. 여기의 ‘豹’이 고구려를 지칭한다면, ‘虎’는 契丹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 즉 高句麗 유민과 契丹의 반당 세력이 힘을 합쳤지만, 갑옷을 입은 유력자들은 高質의 모병에 적극 호응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갑옷을 입지 못하고 창만 든 일반 병사는 거의 모이지 않았기 때

131) 『舊唐書』 권5 고종기하 儀鳳4년 11월조.

132) 『資治通鑑』 권206 唐紀22 聖曆원년 8월조.

133) 697년 3월에 戰死한 王孝傑의 직임은 淸邊中道前軍總管(『陳伯玉文集』 권4 〈奏白鼠表〉)이었고, 그가 전사한 다음 4월에 沙吒忠義가 淸邊中道前軍總管에 보임되었다(『新唐書』 권4 神功원년 5월 癸卯).

134) 〈閻度福墓誌銘〉(『唐代墓誌彙編』 景龍2) : “尋轉檀州刺史, 仍爲淸邊西道前軍大總管.”
〈公孫思觀墓誌銘〉(『唐代墓誌彙編』 開元100) : “尋以匈奴作梗, 充淸邊西道前軍押官.”

135) 『資治通鑑』 권198 貞觀19년 10월조.

136) 孫進己·馮永謙, 『東北歷史地理』(二), 黑龍江人民出版社, 1989, 313쪽; 여호규, 『고구려 성』(Ⅱ), 국방군사연구소, 1999, 271~273쪽.

137) 趙振華·閔庚三, 앞의 글, 2009, 28쪽.

문에, 高質은 2천 여 명의 병사로 수 만 명을 상대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는 高質의 募兵에 대해 고구려 유민 가운데 일부 유력자가 호응했지만, 대다수 유민들은 오히려 唐에 抗拒했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현전하는 문헌자료에는 696년 하반기에 安東都護 裴玄珪나 遼東都督 高仇須 등이 契丹을 격파한 기록만 확인되지만, 〈高質墓誌銘〉을 통해 이 무렵에 이미 고구려 유민들이 광범위하게 唐에 抗拒하던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697년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 高質과 高慈 부자가 磨米城을 지키다가, 697년 5월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함락당하고 전사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전술했듯이 磨米城은 安東都護府 예하 靺鞨州의 하나로¹³⁸⁾ 南單德의 조부인 南狄이 靺鞨州 장관으로 임명된 바 있다. 그러므로 697년 5월 磨米城 함락은 安東都護府 예하의 주요 靺鞨州가 당에 抗拒한 고구려 유민에게 점령당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에서 高質이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전사한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淸邊道行軍大總管 武攸宜는 高仇須에게 보낸 서신에서 697년 2월에 蕃漠의 정예병 40만을 진격시켜 거란을 토벌할 계획인데, 이때 중랑장 薛訥로 하여금 5만 정예병을 이끌고 海路로 東進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高質墓誌銘〉에 기술된 697년 5월 磨米城의 상황으로 보아 이때까지도 薛訥은 요동지역으로 파견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¹³⁹⁾

결국 高質은 唐兵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선발대로 ‘淸邊東軍總管’으로 파견되어 고구려 유민을 상대로 거란 토벌을 위한 모병을 전개하다가, 오히려 唐에 抗拒하는 고구려 유민의 공격을 받아 전사했다고 파악된다. 그러므로 요동지역의 고구려 유민들은 696년 5월 거란이 흥기한 직후부터 당에 항거하는 부흥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697년 5월에 安東都護府 예하의 靺鞨州가 설치된 磨米城이 고구려 유민에게 점령당한 데서 보듯이 고구려 고지에 대한 당의 통제력도 급격히 약화되었다.

이에 唐은 697년 6월 돌궐의 협조를 받아 거란의 부흥운동을 평정한 다음, 당초 계획대로 薛訥로 하여금 대병을 이끌고 가서 요동지역을 평정하도록 했을 것이다. 狄仁傑이 697년 윤10월 安東都護府 폐지를 주장하는 상소에서 ‘罷薛訥’이라고 언급한 사실은¹⁴⁰⁾ 이때는 薛訥이 요동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반영한다.¹⁴¹⁾ 다만 唐에 항거하는 高句麗 遺民의 세력이 이미 강성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진압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狄仁傑이 두 차례나 상소하여 安東都護府를 폐지하고, 보장왕의 후손으로 하여금 自治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고구려 고지에 대한 기미지배 정책을 완화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唐은 狄仁傑의 주장과 같이 寶藏王의 손자 高寶元을 忠誠國王에 봉해 고구려 유민의 통치를 맡기려 했지

138) 『舊唐書』 권19 지리2 안동도호부조; 『新唐書』 권43하 지33하 지리7하.

139) 高質이 薛訥을 따라 요동지역으로 파견되었다고 보기도 한다(김종복, 앞의 책, 2009, 70쪽). 그렇지만 高質은 696년 하반기에 요동지역에서 활동한 반면, 薛訥의 파견은 697년 2월에도 실행되지 않았다.

140) 『通典』 권185 邊防1 고구려전; “臣請罷薛訥, 廢安東鎮. 三韓君長, 高氏爲其主, 誠願陛下體存亡繼絕之義, 復其故地, 此之美名, 高於堯舜遠矣.” 및 『資治通鑑』 권206 神功元년 윤10월조.

141) 〈王慶墓誌〉에 따르면 薛訥이 海路로 파견되는 詔書를 수여받은 것은 696년이며(“萬歲通天元年 白虜越趙, 鋒交竭石. 靑林失律, 火照甘泉. 天子詔左衛將軍薛訥, 絕海長驅, 掩其巢穴. 飛芻輓粟, 霧集登萊”; 『唐代墓誌彙編』, 『陳伯玉文集』 권7 〈榮海文〉)에서는 697년에 唐軍이 海路를 건너기 위한 祭儀를 거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萬歲通天二年(697年) 月日, 淸邊軍海運度支大使, 虞部郎中王玄珪, 敢以牲酒, 馳獻海王之神, 神之聽之. …(중략)…故有渡遼諸軍, 橫海之將, 天子命我, 贏糧景從.”)

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¹⁴²⁾ 696년 하반기부터 전개된 고구려 유민의 抗拒를 완화된 기미지배 정책으로는 잠재우기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로 보아 698년 발해의 건국은 요서지역으로 遷徙되었던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뿐 아니라, 요동지역에서 唐에 抗拒하던 고구려 유민 세력이 다수 참여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파악된다. 高句麗 故地에 대한 唐의 羈縻支配 정책의 실패가 발해 건국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에 唐은 698년 6월에 安東都護府를 安東都督府로 降格시켜¹⁴³⁾ 高句麗 故地에 대한 지배기반의 약화를 自認할 수밖에 없었다.

IV. 맺음말

이상과 같이 유민묘지명을 검토하여 고구려 멸망 이후 당의 동방정책과 고구려 유민의 동향을 고찰했다. 이를 통해 당의 동방정책과 고구려 유민의 동향을 상호 연계시켜 종전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검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唐은 고구려 멸망 직후 고구려 고지에 대한 羈縻支配 政策을 수립했지만, 高句麗 遺民의 반발에 부딪혀 1년여의 정지작업을 거쳐 670년 1월에 비로소 실행했다. 이때 唐이 취한 핵심 조치는 唐의 羈縻支配에 반발하는 ‘離叛者’를 內地로 강제 遷徙하는 것이었는데, 〈南單德墓誌銘〉을 통해 유력자의 청장년子弟를 대거 이주시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협조적인 유력자는 安東都護府 예하 羈縻州 장관 등에 임명했는데, 南單德의 조부인 南狄을 磨米州都督에 임명한 사례, 高欽德 가문이 建安州 都督을 襲爵한 사례 등은 이를 잘 보여준다.

특히 高欽德 가문은 高句麗 遺民으로 구성된 蕃兵을 통솔했는데, 唐이 자신의 羈縻支配에 협조하는 유력자의 세력기반을 일정 부분 용인하며 羈縻支配를 시행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唐은 安東都護府뿐 아니라 각 羈縻府州에도 唐의 官人을 屬僚로 파견해 高句麗 遺民 출신의 羈縻府州 장관을 감시했다. 이로 인해 高句麗 遺民 출신의 羈縻府州 장관은 安東都護府뿐 아니라 휘하 屬僚의 감시를 받으며, 권한과 세력기반이 점차 축소되었다.

이에 고구려 유민들은 고구려 멸망 직후부터 당의 지배정책에 항거하다가, 唐의 羈縻支配가 본격화된 670년 1월 이후에는 더욱 본격적으로 부흥운동을 전개했다. 최근 발견된 〈李他仁墓誌銘〉과 당의 관인이었던 〈陽玄基墓誌銘〉을 통해 요동지역이나 한반도 서북지역뿐 아니라 부여지역과 책성지역에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 유민의 부흥운동이 고구려 고지 거의 전역에서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에 당은 670년 4월에 高侃을 東州道行軍總管, 李謹行을 燕山道行軍總管으로 삼아 고구려 유민의 부흥운동을 진압하는 한편, 671년 초에 薛仁貴를 鷄林道總管으로 삼아 신라 방면을 공략했다. 그리고 674년에는 鷄

142) 『舊唐書』 권199상 열전149상 고려전.

143) 『舊唐書』 권19 지리2 안동도호부조 : 聖曆元年(698년) 六月, 改爲安東都督府.

林道總管府를 鷄林道大總管府로 재편하여 新羅와의 전면전에 착수했다. 이때 東州道行軍總管府와 燕山道行軍總管府는 해체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李謹行을 鷄林道副總管에 임명한 것은 이를 반영하다. 高句麗 遺民 高乙德이 674년에 東州道行軍總管府의 長史에서 ‘左淸道率府 頻陽府 折衝(都尉)’로 轉任된 것도 東州道行軍總管府 해체에 따른 조치로 추정된다. 〈高乙德墓誌銘〉을 통해 唐이 673년경 고구려 부흥운동을 진압하고, 674년부터 신라와의 전면전에 착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唐은 나당전쟁에서 패배한 다음, 安東都護府의 治所를 676년 2월 遼東城으로 옮겼다가 677년 2월에 다시 新城으로 옮겼다. 이와 더불어 安東都護府에 파견했던 唐의 官人을 철수시키는 한편, 寶藏王을 遼東州都督 朝鮮郡王에 봉해 요동지역으로 파견하고, 강제 이주했던 유민도 귀환시키며 완화된 羈縻政策을 시행했다. 다만 男生을 요동으로 파견해 安東都護나 그에 준하는 職任을 수행하도록 했다. 당이 보장왕과 남생으로 대표되는 고구려 유민 세력의 상호 견제를 통해 고구려 고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했던 것이다.

唐의 이러한 의도는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고구려 유민의 抗拒를 완전히 잠재우지 못했다. 보장왕이 남생이 사망한 679년경에 말갈과 연대해 부흥운동을 도모한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에 唐은 보장왕을 소환하고 비협조적인 유민들을 대거 강제 천사시키는 한편, 安東都護府에 唐의 관인을 파견해 기미 지배를 다시 강화했다. 安東都護를 두 차례나 역임한 〈屈突詮墓誌銘〉과 그의 아들 〈屈突季札墓誌銘〉을 통해 681년 安東都護府 예하의 貢州에 唐의 官인이 파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突厥이 679년 10월부터 唐에 반기를 들자, 唐은 매년 대규모 원정군을 편성했다. 여러 유민묘지명을 통해 고구려 유민 출신 장수들이 돌궐 방어전에 투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686년에는 泉獻誠과 高玄, 690년에는 高足西와 高玄 등이 각각 동일한 원정군에 편성되어 상하 지휘 관계를 이루었는데, 고구려 유민을 조직적으로 동원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때 唐은 高句麗 故地의 遺民을 동원하지는 않았는데, 이들의 동요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히려 686년에 朝鮮郡王府를 부활시켜 이들의 동요를 예방하기 위한 慰撫策을 폈다.

契丹도 696년 5월부터 唐에 반기를 들고 부흥운동을 전개했다. 契丹의 부흥운동은 697년 6월에 일단락되지만, 그 여파로 高句麗 遺民들이 靺鞨과 연대해 발해를 건국하기에 이른다. 그러므로 契丹의 흥기 이후 고구려 유민도 당에 항거했을 텐데, 〈高質墓誌銘〉과 〈高慈墓誌銘〉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高質은 696년 5월에 瀟河道 討擊大使, 696년 9월에 淸邊東軍總管에 임명되었는데, 海路를 통해 요동지역으로 건너가 고구려 유민을 募兵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高質의 募兵에 대해 고구려 유민 중 일부 유력자는 호응했지만, 대다수 유민들은 오히려 唐에 抗拒했다. 더욱이 高質과 高慈 부자는 安東都護府 예하 羈縻州의 하나인 磨米城을 지키다가, 697년 5월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함락당하고 전사했다.

거란이 흥기한 직후부터 요서지역뿐 아니라 요동지역의 고구려 유민도 광범위하게 부흥운동을 전개했고, 이로 인해 羈縻州가 함락당할 정도로 唐의 통제력도 급격히 약화되었다. 이에 唐은 697년 6월 거란의 부흥운동을 평정한 다음, 대규모 원병을 파견해 고구려 고지에 대한 통제력 강화를 도모했다. 그렇지만 唐에 항거하는 高句麗 遺民의 세력이 강성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진압하기가 쉽지 않았고, 결국 698년 고구려 유민들은 말갈과 연대해 발해를 건국했다. 高句麗 故地에 대한 唐의 羈縻支配 실패가 발해 건국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참고문헌〉

1. 묘지명 집성 및 역주서

고구려연구재단 편, 『중국소재 고구려관련 금석문 자료집』, 고구려연구재단, 2004.
권덕영 외, 『중국 소재 한국 고대 금석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5.
朴漢濟, 「고구려 유민 관련 금석문」, 『譯註 韓國古代金石文』(1),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毛漢光, 『唐代墓誌彙編附考』,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91.
拜根興, 『唐代高麗百濟移民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2.
陝西省古籍整理辦公室 編(吳鋼 주편), 『全唐文補遺』(1-8집), 三秦出版社, 1995~2005.
陝西省古籍整理辦公室 編(吳鋼 주편), 『全唐文補遺(千唐誌齋新藏專輯)』, 三秦出版社, 2006.
李永強·余扶危 주편, 『洛陽出土少數民族墓誌匯編』, 河南美術出版社, 2011.
周紹良·趙超 주편, 『唐代墓誌彙編續編』, 上海古籍出版社, 2001.
周紹良·趙超 編, 『唐代墓誌彙編(下卷)』, 上海古籍出版社, 1992.

2. 연구서

김종복, 『발해정치외교사 연구』, 일지사, 2009.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9.
서영교, 『나당전쟁사연구』, 아세아문화사, 2006.
이상훈, 『나당전쟁연구』, 주류성, 2012.
여호규, 『고구려 성』(Ⅱ), 국방군사연구소, 1999.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5.
정재훈, 『돌궐유목제국사』, 사계절, 2016.

苗威, 『高句麗移民研究』, 吉林大學出版社, 2011.
姜清波, 『入唐三韓人研究』, 暨南大學出版社, 2010.
拜根興, 『唐代高麗百濟移民研究』,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12.

3. 연구 논문

권덕영, 「한국고대사 관련 중국 금석문 조사 연구」, 『사학연구』 97, 2010.
권은주, 「고구려유민 高欽德, 高遠望 부자 묘지명 검토」, 『대구사학』 116, 2014.
김강훈, 「고구려 멸망 이후 부여성 권역의 부흥운동」, 『대구사학』 127, 2017.
김강훈, 「요동지역의 고구려 부흥운동과 검모잠」, 『군사』 99, 2016.

- 김수진, 「당으로 이주한 고구려 포로와 지배층에 대한 문헌과 묘지명의 기록」, 『한국고대사 연구의 자료와 해석』(노태돈교수정년기념논총), 사계절, 2014.
- 김종복, 「고구려 멸망 전후의 말갈 동향」, 『북방사논총』 5, 2005.
- 김현숙, 「고구려 붕괴 후 그 유민의 거취 문제」, 『한국고대사연구』 33, 2004.
- 金賢淑, 「中國 所在 高句麗 遺民의 동향」, 『한국고대사연구』 23, 2001.
- 김호동, 「당의 기미지배와 북방 유목민족의 대응」, 『역사학보』 137, 1993.
- 盧泰敦, 「高句麗 遺民史 研究」, 『韓沍劭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知識産業社, 1981.
- 閔庚三, 「신출토 高句麗 遺民 高質 墓誌」, 『신라사학보』 9, 2007.
- 閔庚三, 「中國 洛陽 신출토 古代 韓人 墓誌銘 연구-高質 墓誌銘을 중심으로-」, 『신라사학보』 15, 2009.
- 拜根興, 「高句麗 遺民 高性文·高慈 父子 墓誌의 考證」, 『忠北史學』 22, 2009.
- 拜根興, 「高句麗 遺民 高足西 墓誌銘」, 『中國史研究』 12, 2001.
- 拜根興, 「고구려·발해 유민 관련 유적·유물」, 『중국학계의북방민족·국가연구』(한국어), 동북아역사재단, 2008.
- 拜根興, 「唐 李他仁 墓誌에 대한 몇 가지 고찰」, 『충북사학』 24, 2010a.
- 宋基豪, 「고구려 유민 高玄 墓誌銘」, 『서울大學校博物館年報』 10, 1998.
- 안정준, 「李他仁墓誌銘에 나타난 李他仁의 生涯와 族源」, 『목간과 문자』 11, 2013.
- 여호규, 「新發見 ‘高乙德墓誌銘’을 통해 본 高句麗 末期의 中裏制와 中央官制」, 『백제문화』 54, 2016.
- 여호규·李明, 「고구려 유민 ‘이타인묘지명’의 재판독 및 주요 쟁점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85, 2017.
- 윤용구, 「중국 출토 고구려 백제 유민 묘지명 연구동향」, 『한국고대사연구』 75, 2014.
- 이규호, 「당의 고구려 유민정책과 유민들의 동향」, 『역사와현실』 101, 2016.
- 李文基, 「高句麗 遺民 高足西 墓誌의 檢討」, 『歷史教育論集』 26, 2000.
- 이상훈, 「검모잠의 최초 거병지 검토」, 『한국 고대사 연구의 자료와 해석』(노태돈교수정년기념논총2), 사계절, 2014.
- 李成制, 「어느 고구려 무장의 가계와 일대기 - 새로 발견된 ‘高乙德墓誌’에 대한 譯註와 分析」, 『中國古中世史 研究』 38, 2015.
- 葛繼勇, 「신출토 入唐 高句麗인 ‘高乙德墓誌’와 고구려 말기의 내정 및 외교」, 『韓國古代史研究』 79, 2015.
- 이정빈, 「고연무의 고구려 부흥세력과 부흥운동의 전개」, 『역사와현실』 72, 2009.
- 장병진, 「당의 고구려 고지 지방방식과 유민의 대응」, 『역사와현실』 101, 2016.
- 장병진, 「새로 소개된 고구려 유민 ‘南單德’ 묘지에 대한 검토」, 『高句麗渤海研究』 52, 2015.
- 정병준, 「營州城傍高麗人’王思禮」, 『고구려연구』 19, 2005.
- 정병준, 「唐朝의 高句麗人 軍事集團」, 『동북아역사논총』 24, 2009.
- 정병준, 「營州의 大祚榮 集團과 渤海國의 性格」, 『동북아역사논총』 16, 2007.
- 존 씨 재미슨, 「나당동맹의 와해」, 『역사학보』 44, 1969.

- 呂九卿, 「試探武周陽玄墓誌中的若干問題」, 『武則天與神都洛陽』 中國文史出版社, 2008.
- 拜根興, 「高句麗遺民高足西墓誌銘考釋」, 『碑林集刊』 9, 2003.
- 拜根興, 「唐李他仁墓志研究中的幾個問題」, 『陝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39-1, 2010b.
- 孫進己·馮永謙, 『東北歷史地理』(二) 黑龍江人民出版社, 1989.
- 孫鐵山, 「唐李他仁墓志銘考釋」, 『遠望集』 下, 陝西人民美術出版社, 1998.
- 王連龍, 「唐代高麗移民高乙德墓志及相關問題研究」, 『吉林師範大學學報』 2015-4(7월호).
- 王菁·王其禕, 「平壤城 南氏: 入唐高句麗移民新資料」, 『北方文物』 2015-1.
- 王化昆, 「武周高質墓誌考略」, 『河洛春秋』 2007-3.
- 趙振華·閔庚三, 「唐高質高慈父子墓誌研究」, 『東北史地』 2009-2.

* 이 논문은 2017년 8월 25일에 투고되어,
2017년 9월 13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6년 9월 24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6년 9월 29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

Eastern Policies of the Chinese Tang dynasty and Activities of the Koguryo Refugees through Remaining Tomb Epitaphs[墓誌銘]

Yeo, Hokyu* · Bai, Genxing**

This thesis aimed at examining the Koguryo refugees as well as the Chinese Tang(唐) dynasty's Eastern policy during the 2nd half of the 7th century, through remaining tomb epitaphs[墓誌銘] of those Koguryo refugees. As part of a joint project with Professor Bai, Genxing(拜根興) at the Shaanxi(陝西) Education University, I surveyed a grand collection of extant epitaphs of Koguryo refugees, and tried to examine their movements and activities. I also wanted to have a look at how they progressed as the Tang's policy tended to change itself as well, and analyzed written documents from many perspectives to that end. As a result, I was able to recreate details of the refugees' activities, which turned out to be quite diverse ever since the dynasty fell, and was able to newly determine how their actions affected the Tang's policy in return.

For example, the epitaph of Nam Dan-deok(南單德) and epitaphs of Go Heum-deok(高欽德) & Go Weon-mang(高遠望), which were all found in 2015, reveal how the Tang dynasty established a ruling authority over Koguryo's old territory. From the epitaphs of Yi Ta-in(李他仁) and Yang Hyeon-gi(陽玄基, who was a Tang official) we can confirm that a Koguryo Revival Movement was widely in progress around 670 and 671 in the Buyeo region as well as areas nearby the Duman-gang river. In the meantime, the recently found epitaph of Go Eul-deok(高乙德) vividly shows us how Tang subdued the Revival movement around 673 and began to engage Shilla full-scale in 674.

Tang organized a large army in 679 to protect itself from the invasion of the Turks, and through many Koguryo refugee epitaphs we learned that many of them were actually enlisted in the Turk front. And especially from the epitaph of Go Hyeon(高玄), we discovered that Koguryo refugees who had been dispersed and stationed in various Ju/州 areas were systematically pulled from where they were to be diverted to the front. Unfortunately we were not able to identify the

* Professor,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Professor, Shaanxi Normal University

status of Koguryo refugees who remained inside the dynasty's old territory while the Khitans' rise in June 696 which definitely led to Balhae's foundation in 698 was heavily on our minds. The fact that since the Khitans' rise the Koguryo refugees in the Liadung region were behind the Koguryo Revival movement was newly determined by epitaphs of Go Jil(高質) and Go Ja(高慈).

As mentioned above, I examined all the existing written texts as well as newly discovered epitaph materials in order to analyze changes in the Tang dynasty's Eastern policy as well as the ever-changing status of the Koguryo refugees from a multilateral perspective. The fact that Koguryo Revival movements also progressed in the Buyeo and Duman-gang region was newly determined during this project and will help enhance the overall understanding of this period. Also, the newly identified detail that Koguryo refugees in the Liaodung region involved themselves in a Koguryo Revival movement right after the Khitans rose will contribute to bettering previous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 background which was behind the foundation of Balhae. Results from this project would be able to provide scholars and researchers with details regarding the Koguryo refugees' actions, Shilla's Tang policy, and changes in the Tang dynasty's Eastern policy, and enable them to have a macroscopic view of the overall picture including the Unified Shilla's firm establishment as well as the foundation of Balhae, which were all crucial changes the Koreans of this period were able to witness.

[Key Words] Koguryo refugees, Koguryo Revival movements, Tang dynasty's Eastern policy, Remaining tomb epitaphs, Balhae

